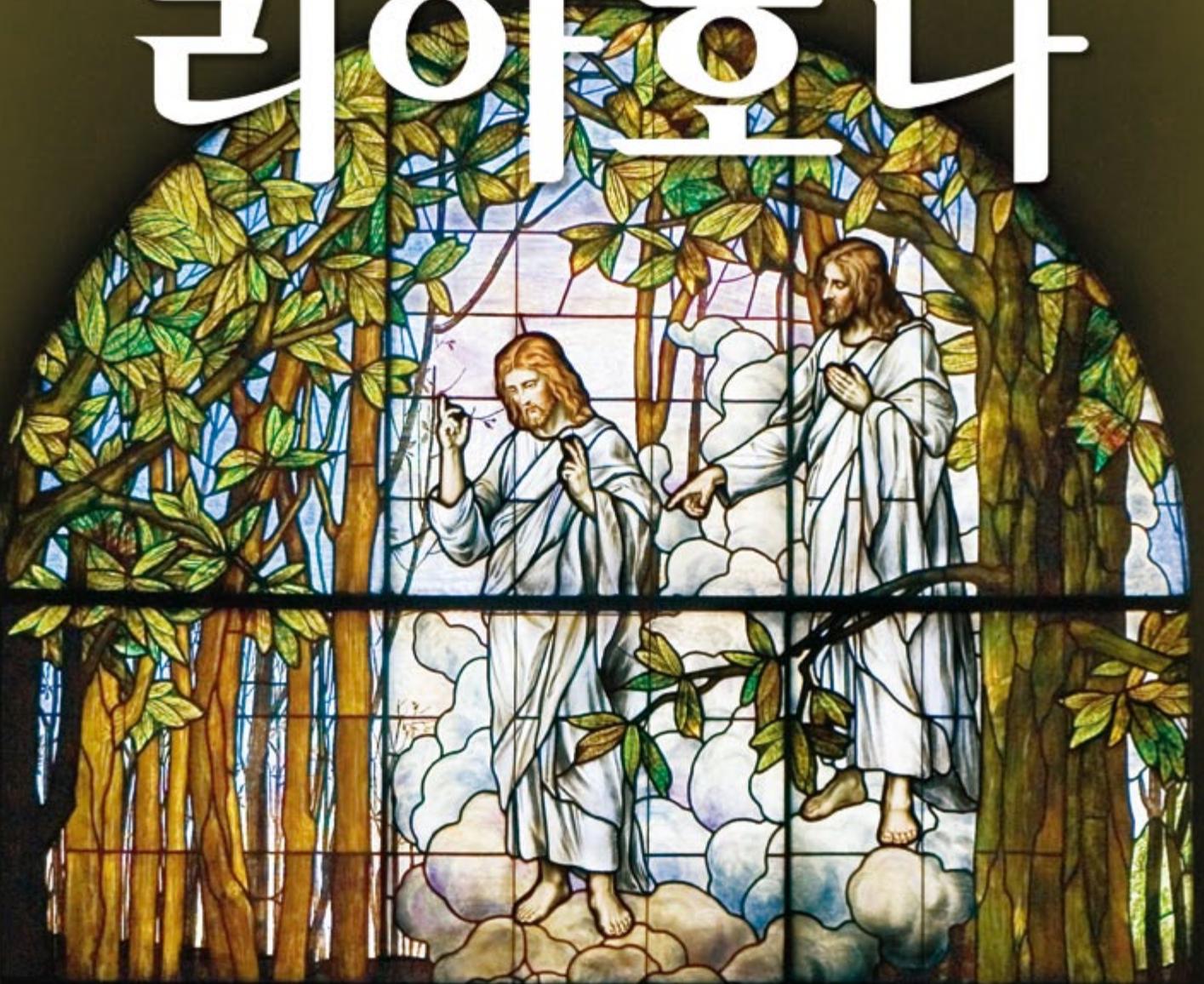


리아호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20, 52, 60쪽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돕는 방법, 32쪽

연차 대회 보조 자료, 8쪽

전자 기기를 끄는 어린이들, 61쪽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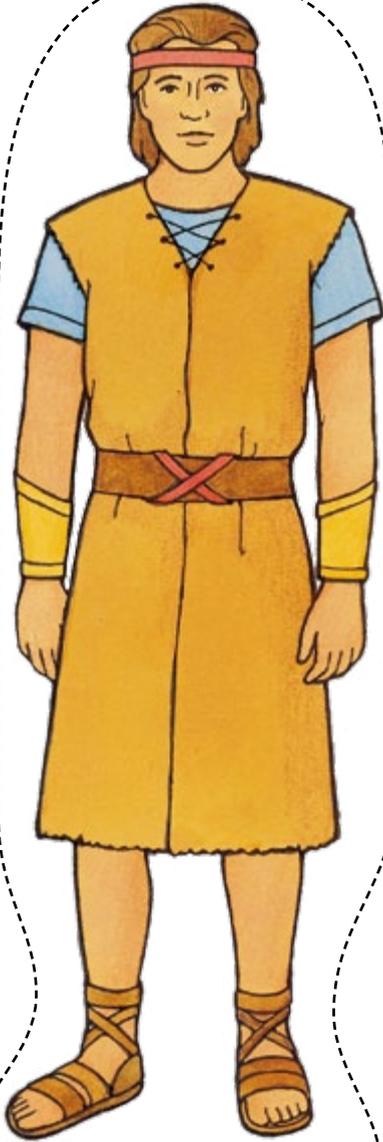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고도프레도 오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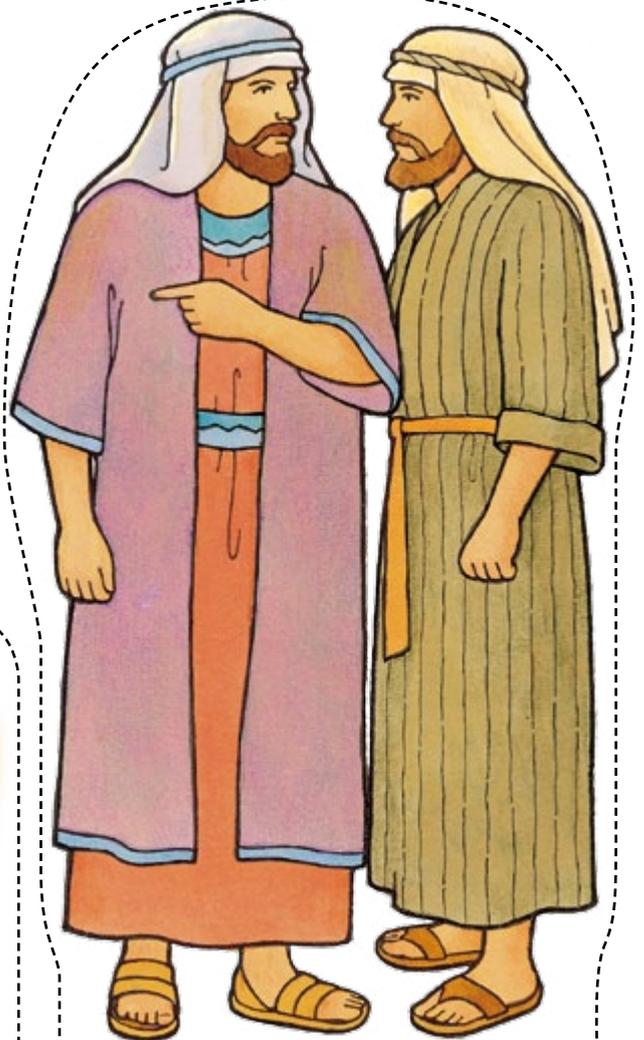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한 가족이 성전의 빛 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가족은 어둠 속에 있지만 곧 선교사를 만납니다. 위에 있는 가족은 기도하고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배우고, 침례와 확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성약을 맺게 됩니다.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 그들 위에 빛이 비취었도다.”
 (니파이후서 19:2)

을 해 리아호나 여러 호에는 물문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내어 두꺼운 종이나 판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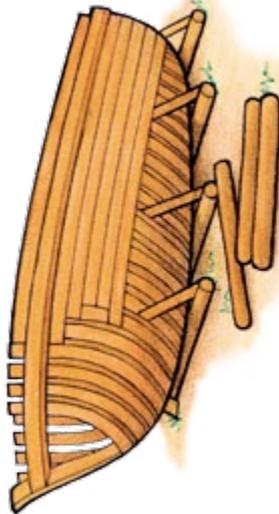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파이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니파이전서 17장



니파이



레이맨과 레뮤엘





리아호나, 2012년 2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기도하도록 권면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의 보호자

특집 기사

- 14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다나 흘른백
오랜 세월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고 느꼈다. 위로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일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표지
첫번째 시현, 미국 유타 주, 브리검 시티 제3와드 집회소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 16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아니겠느냐?”
알렉산드리아 셸트
나는 선교 사업 중에 아길라 가족의 삶에서 음식의 축복을 보았다.
- 20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
쿠엔틴 엘 쿡 장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신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희망과 잠재력을 계획하신 창조주이십니다.
- 26 에콰도르에 찾아온 말씀에 대한 갈망
조슈아 제이 퍼키
봉사와 우정 증진과 개종으로 회원들이 기쁨을 찾는 방법
- 32 이 어린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다니엘르 퍼거슨
인지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돕는 일곱 가지 원리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부름 수행 중에 받는 비난에 대처하기 익명
- 12 우리의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 부모를 닮고자 애쓰고 공경하며 스코트 밴 캠편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줄리 비 벡

오늘날의 청년 성인들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데 특별히 더 적합합니다.

45 내 삶의 복음: 나의 가족 역사에 도전하다

크리스티나 알베리아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다니엘과 조셉은 알고 있습니다.

52

46 질의응답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가끔 저에게 상반된 충고를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8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로 여러분은 힘, 보호, 확인, 인도, 애정 어린 친절과 같은 영적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5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안다는 것은 독특하고도 많은 차이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54 높은 표준의 소리

힐러리 와킨스 레먼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는 포르투갈의 청년, 게어손은 복음 표준들을 옹호합니다.

55 우리들 공간

56 휩쓸리지 마십시오

애덤 시 올슨
통가의 청년, 사아네는 순결의 범이 영적인 방어책이라고 말한다.

58 선교 임지에서: 침례탕에 물이 없어요

시오사이아 나에아타 이세



66

60 특별한 증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61 플러그를 뽑아

애니 비어

전자 기기들을 끄고 다른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언

62 우리들 이야기

63 빛나는 아이디어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66 안전을 구하는 기도

수엘리 데 아키노

나는 거센 밀물을 헤치고 해변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전함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68 행복한 벨런타인! 타인 오, 케냐 나이로비

리처드 엠 롬니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몰몬경의 인물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신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패커,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피피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기구지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멜리사 메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타,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린트, 라켈 포트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카, 채드 이 패러스, 쟈넌 핀보로우, 폴 핀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다스, 멜리사 젠더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플레트 네베거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트,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타마커,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게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랄슨

통 관: 제544호, 제49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일: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1004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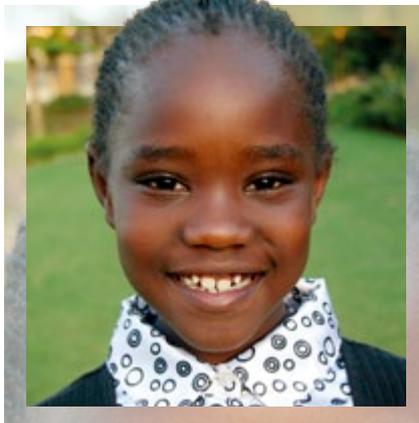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12 Vol. 36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 가르침, 32
- 가족 역사, 42, 45
- 가족, 20, 25, 46, 80
- 개종, 38
- 교회 역사, 10
- 구원의 계획, 20, 39
- 금식, 16
- 기도, 4, 46, 66, 70
- 기쁨, 26
- 단합, 26
- 덕, 55, 56
- 매체, 61
- 모범, 54
- 물문경, 38
- 봉사, 26
- 부름, 11, 26, 32
- 사랑, 25, 68
- 선교 사업, 26, 54
- 성전, 41, 42
- 소망, 55
- 순결, 56
- 순종, 55, 64
- 신성한 본질, 14, 20, 25, 52, 80
- 신앙, 14
- 십일조, 40
- 연차 대화, 8

Liahona.lds.org

성인

인지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찾아보려면 32쪽을 참고한다. 교회 웹사이트 lds.org/disability에는 여러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과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에콰도르 오레야나 지부의 충실한 회원들(26쪽 참조)에 관해 읽고 liahona.lds.org에서 회원들의 사진을 더 찾아본다.

청소년

표준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막아 주는 난간과 같으므로, 표준을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고 통가의 청년인 사야네는 말한다.(56쪽 참조) 사야네의 사진과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마푸 아바에아의 블로우 홀 사진을 liahona.lds.org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

케냐에 사는 타인을 68쪽에서 만나 보자. 타인의 사진과 케냐의 야생 동물 사진을 liahona.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 41, 80
- 우정 증진, 26
- 음악, 54
- 이혼, 46
- 장애, 32
- 조셉 스미스, 52
- 지혜의 말씀, 12
- 초등회, 32
- 축복, 40, 48, 72
- 친절한 자비, 48
- 침례, 58
- 표준, 54, 56
- 하나님 아버지, 14, 20, 25, 52, 60, 66, 70, 80
- 합당성, 4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기도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모범을 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기도에 대한 시각과 그에 따른 경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밝은 빛에 둘러 싸이신 채 저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820년에 뉴욕 주 맨체스터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봄날에 숲 속에 계시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세상의 구주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경험의 실재성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여러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조셉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 앞에 서서 기도드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구주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선물로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생에서 그분과 대화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 권면하는”(교리와 성약 20:47) 성스러운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기도하도록 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전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감사를 드리거나 간청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받은 축복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말씀에서 인도와 위안을 받아왔으며, 영을 통해 그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으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셉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이 말씀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충실한 한 아들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기도로 그분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권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오는 빛과 사랑의 느낌만큼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 계명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이는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항상 기도하라는 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사이자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성신의 권능으로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 “그림은 공과의 주요 개념을 강화하[는] …… 시각 도구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61쪽) 조셉 스미스나 첫 번째 시현에 관한 그림을 보여 준다. 조셉 스미스가 기도와 관련하여 경험한 내용을 토론해 본다. 아이어링 회장처럼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어떻게 더 깊어지겠는가?
- 아이어링 회장이 제안한 것처럼 기도에 관한 경전 구절을 나누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설명하며, 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본다.

강력한 기도

오스틴 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어느날 밤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감사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를 막

마치려는 순간 내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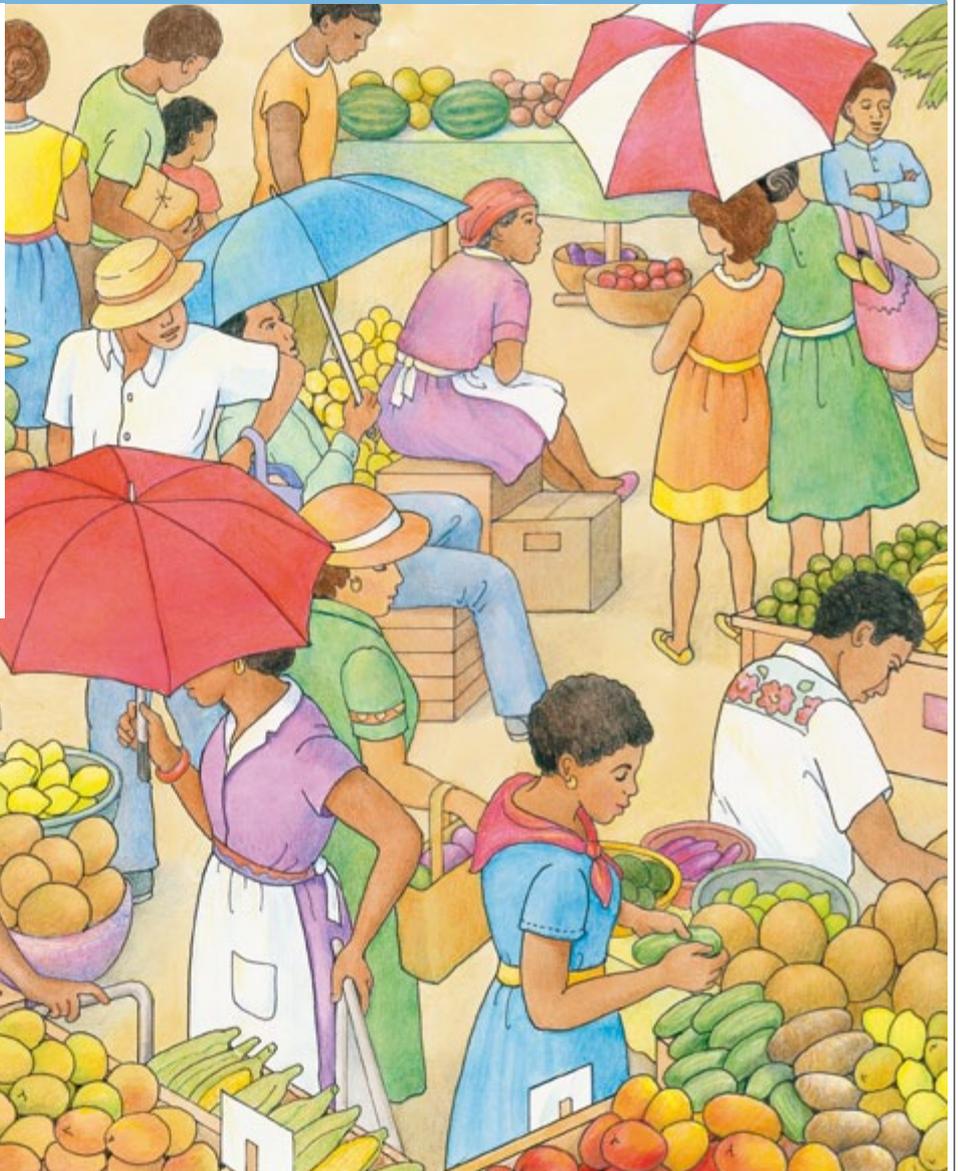
하지만 나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 진실되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내 짐은 가벼워지고 죄는 씻겨 없어지며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떠오르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간증한다.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이어령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분의 면전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린이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가정의 보호자

19 95년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습관을 형성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¹

17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선언문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바바라 톰슨 자매는 힝클리 회장이 선언문을 처음으로 낭독하던 그때에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 있었다. 톰슨 자매는 이렇게 회고한다. “위대한 모임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부모에게 훌륭한 지침이자 또한 큰 책임이다.’ 저는 제가 미혼이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이 선언문이 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문은 내게도 관련이 있어. 나도 한 가족의 일원이야. 딸이고, 언니이고, 이모이고, 사촌이고, 조카딸이고, 손녀인걸. 나는 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축복도 받고 있어. 내가 만약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고, 다른 가족을 강화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어.’”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홀로 내버려진 것은 아니다. 톰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따르며,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주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²

성구에서

잠언 22:6; 니파이전서 1:1; 니파이후서 25:26; 앨마서 56:46~48; 교리와 성약 93:40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내가 돌보는 자매들이 가족을 강화하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나는 어떻게 가족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빛세바 더블유 스미스 자매는 제4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1901~1910)으로 봉사하면서 가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위한 어머니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는 결혼과 태교, 자녀 양육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이 과정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전한 다음 가르침을 뒷받침했다. 스미스 회장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상호부조회가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존재하는 책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곳, 가족과 가족의 의무에 관하여 무지한 곳, 또는 이해가 부족한 곳이라 해도 이 조직은 그곳에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곳 가까이에서라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이 조직에 부여된 은사와 영감으로 그러한 중요한 의무들을 가르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³

주

1.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2. 바바라 톰슨,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117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53쪽.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1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삶을 변화시키는 책

“이 책(물몬경)은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줍니다.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선교사 동반자가 했던 일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대 시절에 그 친구가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상자 안에 누군가 그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물몬경을 넣어 두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는 세상 여러 곳을 다녔으나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자를 보니 그 안에는 갖고 다니던 잡동사니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상자 바닥에서 물몬경을 찾아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약속을 읽었으며, 그 약속을 시험해 보고 물몬경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를 연자 그 친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바랐던 꿈을 초월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몬경도 바쁜 일상과 신경 쓸 다른 일에 치여 여러분 시야에서 가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책을 자주, 깊이 공부하십시오. 물몬경에는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보좌, “증인”,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0~71쪽.

그는 물몬경을 찾았다.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이 참된지 확인했다. 그 약속이 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볼 질문

-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몬경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물몬경을 더 잘 공부하기 위해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 삶을 변화시켜 더 나아지는 데 물몬경의 어떤 교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LDS.org에 있는 주제별 학습, “물몬경”; 태드 알 콜리스트, “물몬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4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7~28쪽, 103~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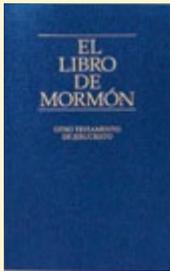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방문하십시오.



교회의 여성분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계속 신앙을 **키우시고** 개인적으로 의로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위대하고 참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상호부조회라는 축복된 조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도우십시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일회장단 제2보좌, "물망초",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23쪽.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데 몰몬경이 여러분의 품성과 능력, 용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그 책에 담긴 가르침과 용감한 본보기들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인도하며,

담대하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는 몰몬경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취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구주에 대한 증거를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몰몬경에 담긴 말씀과 영을 가정과 식구들의 삶에 가져오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증인”,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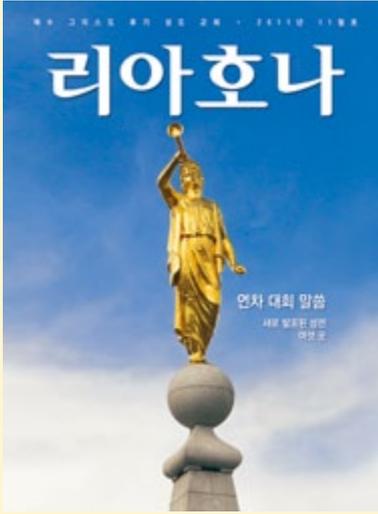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기금은 “성전 방문을 갈망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업무를 내지 못하는 회원들이 한 차례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데 쓰인다.” 이 기금에 기부하려면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에게 내는 현금 명세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내면 된다.¹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만나며”,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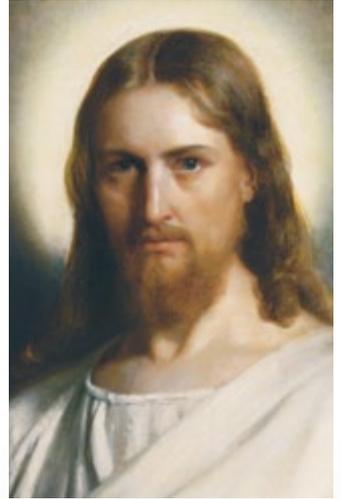
매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회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질문에 대해 영감에 찬 답변을 제시한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연차 대회 잡지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 방문한다.

- 우리가 “성약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러셀 엠 넬슨, “성약”, 86쪽 참조.
- 왜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생기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71쪽; 쿠엔틴 엘 쿡,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104쪽 참조.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미 있는데도 왜 물문경이 필요한가? 태드 알 콜리스터, “물문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74쪽 참조.
-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바라 톰슨, “개인적인 계시와 간증”, 9쪽 참조.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예 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제가 직접 이를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의 가르침”,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93쪽.



소탕과 함께하신 그리스도 그림의 부분 확대. 원 위인리히 볼로초; 사진: 에밀리 레이쉬먼

학습 코너

한 차례 이상

리 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2011년 연차 대회 말씀, “경전의 힘”에서 경전을 암기하고 숙고하는 것은 “계시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성신의 인도와 영감을 불러오는 열쇠를 얻게” 해준다고 말씀했다.

2011년 10월 연차 대회 동안 각각 3번씩 인용된 다음 세 경전 구절을 암기해보도록 한다.

모사이야서 2:17¹

모로나이서 7:47²

디모데전서 4:12³

주

- 호세 엘 알론소,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14쪽 참조;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20쪽; 헨리 비 아이어링, “증인”, 68쪽 참조.
- 리차드 지 스코트, “경전의 힘”, 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증인”, 68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114쪽 참조.
- 엘 톰 페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43쪽; 키스 비 맥밀런, “아론 신권의 권능”, 47쪽; 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 준비: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58쪽 참조.

부름 수행 중에 받는 비난에 대처하기

익명

부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갈 때, 서로와 자신에게 인내해야 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축복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부름을 수행하던 중 와드의 여러 회원들이 관련된 어렵고도 민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처리했고, 그 어려운 경험은 끝났다고 믿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와드 회원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일로 말들이 많았다. 내가 옳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음이 상했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에 그 부름에서 해임되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물론 교회 부름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임된 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일로 마치 나를 탓하거나 별주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들이 매서워진 듯 했고, 와드의 누구와도 당장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해임된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나는 집에 있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 상황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내가 맺은 성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교회가 참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부름 수행 중에 일어난 상황에서 내가 한 대처는 적절할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배우는 과정에 있고, 모두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인정하기 고통스러웠지만,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약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고 계속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할 것이다. 또한 내가 신권 권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는 교회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서 또 다른 부름이 왔다. 그 부름과 그 이후에 또 받았던 여러 부름을 수행하면서 나는 내 행동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도 봉사해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 때문에 교회 활동이란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기쁨을 느낀다. ■



일단은 서로를 믿어 주십시오

“아마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때, 따지지 않고 믿어 주거나 묵묵히 있어 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 단점을 수용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인내하며 대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19쪽.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올 때 받은 큰 축복 중 하나는 신체입니다. 우리 육신은 거룩하고 정말 중요하기에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고린도전서 3:16 참조)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계명 가운데에는 현세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은 영적”(교리와 성약 29:3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에 대한 그분의 계명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19~21 참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돌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보 가운데 많은 것들이 교리와 성약 89편에 들어 있으며,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육신에 해로운 습관이나 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육신에 취하지 말도록 명하신 것 중에는 술과 담배가 포함되며, 이것들은 해로운 물질들입니다.(교리와 성약 89:5~8 참조) 우리는 치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약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약물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몸이 깨끗하면 더 쉽게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음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교리와 성약 89:9) 선지자들은 뜨거운 음료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는 커피와 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뜨겁거나 차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음료를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몸에 해로운 그 어떤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그중 몇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교리와 성약 89:18~20) 것입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167~172쪽과 신앙에 충실함(2004년), 186~188쪽을 참조한다.



지혜의 말씀과 다른 성구에서
주님은 건강에 관한 지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 과일, 채소, 건강에 좋은
약초는 “제철에” “신중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9:10~11
참조)



2. 짐승과 새의 고기도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용하[도록]
정해[셨으며] …… 그러할지라도
그것들은 조금씩 사용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9:12)



3. “모든 곡물은 사람의 양식으로 좋은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16)



아래 사진 상좌: © GETTY IMAGES; 오른쪽 사진: 쉐든 시 앤드슨, 존 루크, 로버트 케이지 © CORBIS



4. 우리는 “[우리에게]
마련된 힘 …… 이상으로
…… 더 일하지”(교리와 성약
10:4) 말아야 합니다.



5. 우리는 적절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활력
있게”(교리와 성약 88:124)
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면이 튼튼한 육체를
유지시켜 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4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다나 홀른벡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16)

“예 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문구를 수도 없이 들어 왔지만, 과거에는 그 뜻을 지금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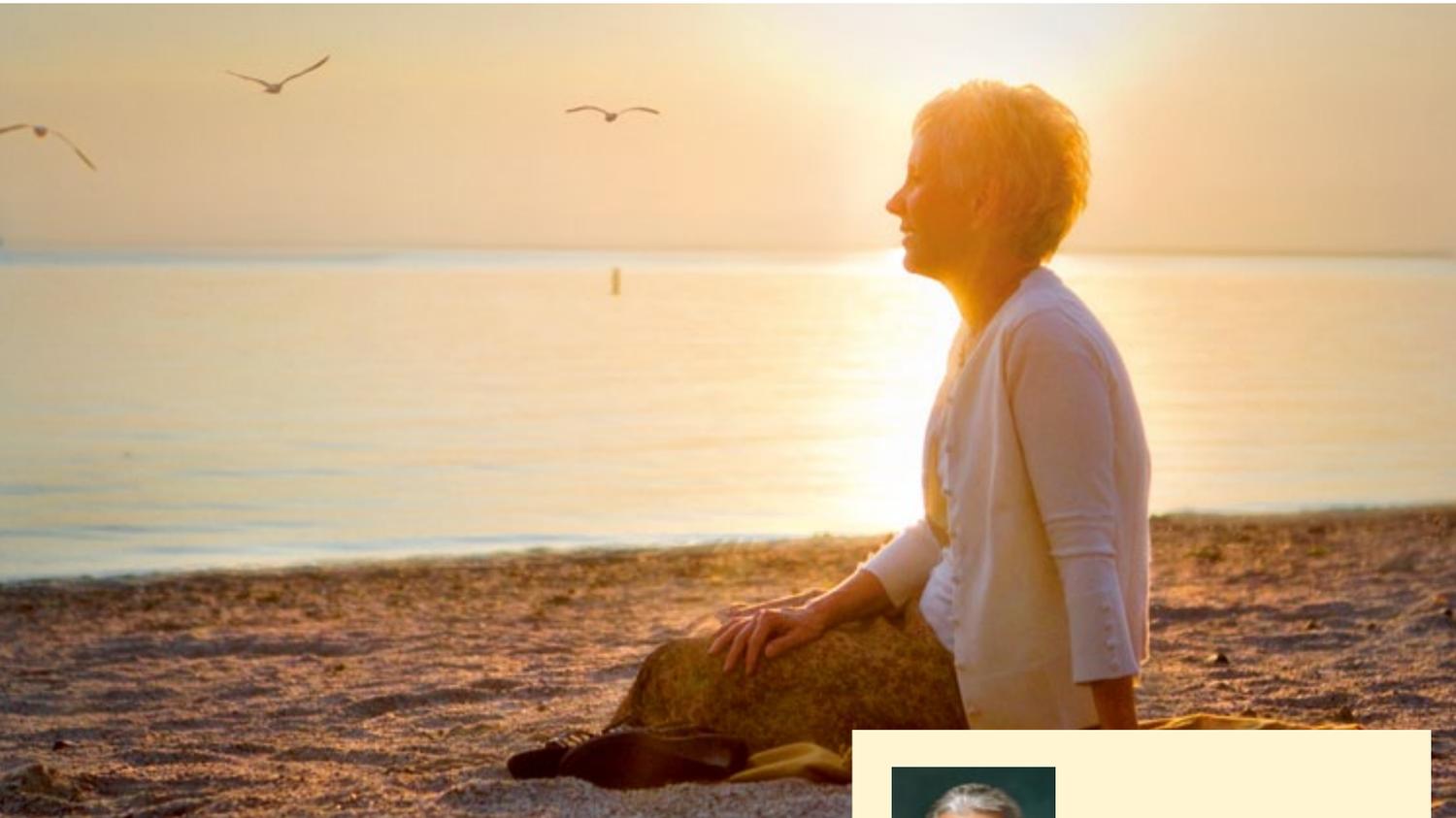
누구나 결국 언젠가는 혼자가 되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내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나고, 일찍 은퇴하게 되면서 혼자가 되는 그 날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내가 극복해야만 했던 가장 괴로운 장애물은 수년 동안 가족과 친구, 배우자와 자녀들,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작스레 찾아온 조용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친구들의 방문이 좋았지만 대부분은 우두커니 혼자 지내야 했고, 나는 그 시간이 싫었다. 끊임없는 적막감에 결국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위안을 찾을 곳이 없었다.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은 끝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느꼈다. 영혼을 파고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잠시 눈물이 잦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안도감이 느껴졌고 마치 넘어진 어린이가 엄마를 봤을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나는 더 오래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에 기댔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파묻고 있을 때, 그분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가 늙었든 젊었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위해 언제나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하지만, 이제는 고요함을 즐길 수 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석양을 바라보기도 하고, 멈춰 서서 장미향을 맡아 보기도 한다. 영의 인도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홀로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이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롭고도 심오한 의미로 자리 잡았으며, 나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실히 안다. 나는 그분의 딸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조셉 스미스-역사 1:5~20; 로버트 디 헤일즈,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을 얻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9 쪽; 그리고 수잔 더블유 태너, “하나님의 딸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6쪽을 참조하십시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형언할 수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결점이 있고, 거부당하고, 서투르고,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심지어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하고 사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슬픔, 실수에 상관없이 무한한 애정으로 감싸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2~23쪽.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한 구도자 가족의 모범을 통해 나는 목적을 갖고 신앙으로 금식의 법에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알렉산드리아 셸트

미 국 텍사스 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 처음으로 이사야 58장을 읽었다. 여기에서 주님은 금식의 법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20여 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다.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나는 내 생활과 친구들, 가족의 생활에서 이런 축복을 많이 보아 왔다. 하지만 우리의 금식을 주님이 받아들이실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은 한 구도자 가족의 모범과 신앙을 통해서였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이사야 58:9)

동반자와 내가 코리나 아겔라 자매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무렵에 이미 그녀는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었다. 복음 회복에 대해 배우고 몰몬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그녀는 교회가 참되다고 느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편인 마누엘이었다.

코리나는 혼자서 교회에 참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온 가족이 함께 복음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누엘은 오랜 시간 일하기에 바빴고, 집에 와서는 마지못해 선교사 토론을 들었다.

코리나는 마누엘이 선교사를 만나고 싶어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토론이 끝날 때쯤 코리나가 금식에 관해 물었다. 우리는 다른 약속에 늦었기 때문에 금식할 때에는 연이어 두 끼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취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금식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과 인도를 간구한다는 말도 해 주었다. 다음 방문 때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떠질 후에 우리는 코리나를 다시 방문했다. 토론 도중, 그녀는 “금식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슬프게 말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코리나는 지난 번에 만난 이후로 금식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침이나 점심을 먹지 않고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다시 금식을 시작하여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3일을 계속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신앙에 감탄하면서 우리는 보통 하루만 금식한다고 바로 설명해 준 다음, 그런 희생을 치르는 동기가 궁금해서 “코리나 자매님, 금식하는 이유가 뭐지요?”라고 물었다.

코리나 자매는 “남편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가족을 위해 축복을 구하려는 그녀의 열망에 큰 감동을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금식하면, 종종 우리의 의로운 기도와 간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¹ 코리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주에 마누엘은 우리를 만나는 데 동의했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운 뒤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몰몬경을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두고 쉬는 시간에 읽었다. 결국 코리나와 마누엘, 세 자녀가 다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런 희생을
치르는 동기가
궁금했던
우리는
코리나에게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코리나
자매는 “남편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

마누엘은 큰 진전이 있었지만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 힘들어 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셔 왔기에 술을 쉽게 끊지 못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까 걱정했다.

코리나는 남편이 습관처럼 술을 마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해 동안 남편을 도와주려고 애써 왔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 찾은 신앙과 금식의 힘에 대한 간증으로 마누엘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정기적으로 금식하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코리나의 사랑을 보면서 신약전서에서 병약한 아들을 고쳐 달라고 사도들에게 간절히 애원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도들은

신앙을 행사했으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온전하게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셨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태복음 17:21)

마누엘이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날 힘을 점차 얻게 된 것도 바로 기도와 금식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를 놀렸지만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이자 그들도 이내 마누엘에 대해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로
네 영혼을 만족하게 ……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이사야 58:11)**

금식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과 인도를 주시지만, 또한 금식 헌금을 관대하게 냄으로써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이사야 58:10) 할 기회가 생긴다. 제일회장단에서 제1보좌로 봉사하신 매리온 지롭니(1897~198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의 성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크게 번성할 것임을 약속합니다.”²

아귤라 부부가 침례를 준비할 때 그들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시험을 받았다. 침례 날짜를 정한 직후 마누엘이 직장을 잃는 바람에, 그와 코리나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은 고사하고 집세와
각종 공과금을 어떻게
낼지도 막막해 했다.
친척에게서 재정적 도움을
얼마간 받았으나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쓰던
물건들을 내다 팔기로
했다. 그들은 집에 있던 몇
가지 값나가는 물품을 판
다음에 여분의 것은 무엇이든지 팔기 시작했다. 한
주 정도 지나는 동안 그 달치 집세 정도는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 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지부 회원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지부 회장님은 마누엘 형제를 만나서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알아보셨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겔라
가족을 돕기 위해 지부 전체가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아겔라 부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많은 축복을 받았다. 두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이사야 58:8)**

2008년 11월 9일, 마누엘과 코리나, 조바니,
루피토까지 아겔라 가족 네 사람은 침례의 물로
들어갔다. 막내인 마리엘라는 침례받을 수 있는
연령인 여덟 살이 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고대했다.
마누엘은 얼마 안 있어 아론 신권을 받고 그 후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일 년 후에
마누엘과 코리나는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지금은
성전에 다시 가서
부모와 자녀들과
인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이사야 58:12)**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교회 회원이

된 마누엘과 코리나는 신앙과 희생의 모범을 통해
그들의 후손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의로운 길을 닦고
있는 개척자들이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도왔으며, 또한 계명에 순종할 때 삶의
기쁨이 온다는 것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몸소 보여
주었다. 이들 중 몇 사람도 선교사들과 만나 침례를
받았다.

금식은 힘과 위안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문을 열어 준다. 아겔라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구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의 약점이나 유혹을 이겨
내려고 애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 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가더라도 금식은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는 데]”(시편 55:22) 도움이 된다. 신앙과
목적의 법에 순종하면 이사야 58장에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

1. 조셉 비 워스런, “금식의 법”,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89쪽.
2. 메리온 지 롬니, “금식의 축복”, *성도의 빛*, 1982년 12월호, 4쪽.

마누엘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날 힘을
점차 얻게
되었으며,
아겔라 가족은
침례 받을
준비를 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

회복의 일부로 계시된 매우 감미롭고 기분이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그리고 지상에 온 모든 사람과 그분의 개인적인 연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도 중에 잃어버린 첫 번째 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 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선 후기 성도가 신앙에 대해 선언한 첫 번째 신조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신앙개조 제1조)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신 전문가이시며, 우리의 소망과 잠재력을 계획하신 창조주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교훈을 받았으며 지상 생활을 준비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우리의 목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교리와 믿음과 원리 가운데서도 그분의 존재와 본성을 말해 주는 진리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했던 고대의 믿는 자들과 선지자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그분의 존재하심과 참된 본성을 인정합니다.(모사이야서 4: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주민들을 위해 계시하시고 명하시고 주도하신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본받으며, 그분처럼 되어 그분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3; 야곱서 4:5; 모세서 5:8 참조)

영원한 가족의 모형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할 때 중요한 점은 계시 받은 가족의 모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¹ 사랑하는 가족 관계로 살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원리를 배우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² 덧붙여, 가족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이 후기 성도가 교회나 사회에서 항상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 관계가 무덤 저편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편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우리 가족과

선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나 구원의 계획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는 성신이 그 진리들에 대해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³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과 함께 한 우리의 전세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많이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가족의 모형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지구를 조직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의로운 가족의 모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 탐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고리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이며 개별적인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에 대해 더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해할 때 그분을 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실재성과 사랑,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연관성의 힘을 느낄 때, 이것은 필멸의 남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감미로운 감정과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오한 사랑의 감정으로 동기 부여 받아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선택과 신중한 행위

모든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영의 아들과 딸입니다.⁴ 난(begotten)이라는 말은 동사인 낳다(beget)의 형용사로 “자손을 낳았다”란 뜻입니다. 낳다란 말은 생명을 주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경전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마태복음 1:1~16; 이터서 10:31 참조)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로운 가족에 대한 모형에서 자녀의 탄생은 신중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영의 자녀 한 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육체를 창조하는 신성한 과정에 참여하는 부모의 사려 깊고 신중한 행위에 따른 기적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랑의 선택과 신중한 행위의 결과임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느낌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일부 사람들에게 개인적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유도하고자 이상적인 탄생 환경과는 거리가 먼 환경을 이용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탄생의 환경과는 상관 없이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의 영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기 위해 사랑과 신중한 선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의로운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신중한 사랑의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에 자녀의 탄생을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탄생 이후에는 자녀를 안고, 이야기하고, 보살피고, 보호하면서 기뻐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특성과 필요 사항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신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자녀 수가 많아도 부모에게는 자녀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자녀인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적어도 우리가 영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귀중한 아들딸들입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지상 가족의 또 하나의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개별적인 사랑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초기 단계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며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에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종종 엄숙한 의식이 동반됩니다. 자녀는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모가 줍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자녀는 이름(어떤 경우는 두 번째 또는 가운데 이름)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곳에서 자녀들은 부모와 가족 및 조상과 연결되는 성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자녀와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더 자세히 확인시켜 주는 두 번째 성(예를 들어 어머니의 성)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개인적이며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전세에 존재하던 개인을 언급하는 몇몇 경전에서는 우리가 현세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비슷한 형태로, 그들을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개인을 방문하신 기록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에 대해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조셉 스미스- 역사 1:17; 또한 모세서 1:6; 6:27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귀중한 아들딸인 우리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주시면서 각각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예레미야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속성을 지니다

경전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창세기 1:26 참조) 유전 과학과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 자식이 부모의 형상과 모습 및 특성을 지니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한 접근은 부적절한 감정이나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의 계보는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많은 세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의 영적인 계보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단지 두 세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 우리의 형상은 그분의 형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가족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해 줍니다. 이것이 후기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항상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의로운 가족 생활의 모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요한1서 3:2; 또한 교리와 성약 130:1참조)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곧은 순종의 길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결실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⁵의 가사를 외우거나 노래할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배도로 크게 왜곡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참혹하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성공회의 지도자이며, 고전주의 학파이고 신자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저자로 큰 존경을 받은 프레드릭 페러는 킹 제임스 판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영어로 바꿀 때 번역상의 실수로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지옥과 저주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은 어린이 및 이해력이 없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 적용이 됩니다.(교리와 성약 29:46~50; 137:7~10 참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사야 14:12~15; 누가복음 10:18; 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76:32~37 참조)과는 달리, 비록 사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지상 생활보다 뛰어난 영광의 왕국들을 준비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76:89~92 참조)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로운 가족 생활의 모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왜곡시키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이끌어 주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학대하고 남성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나, 혼외 출산, 원치 않는 자녀 및 그 밖의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갖기도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알리고자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끼어듭니다. 다행히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나 죄나 조건은 없습니다.(로마서 8:38~39 참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요한1서 4:16, 19 참조)

오늘날 사회적 병폐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관행과 거짓 이념들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가족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가 우아하게 표현한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지식의 열쇠”가 회복되었고⁷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도 지상에 다시 주어졌습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1 참조.
2. 지침서 제2권, 1.1.4 참조.
3. 지침서 제2권, 1.3 참조.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5.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6. Frederic W. Farrar, *Eternal Hope*(1892), xxxvi~xlii 참조.
7.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그분의 사랑의 팔에 둘러싸이다

익명

부 모님은 내가 여섯 살 때 이혼하셨다. 나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지만 아버지는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셨다. 나는 주말과 주중 하루를 아버지 집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내가 일곱 살 때 심각하게 나의 신뢰를 저버리셨다. 신뢰가 깨지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하면 나는 받지 않고 피했다.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에는 보호 관찰 명령에 따라 아버지 집에서 강제로 머물러 있어야 하기 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점점 방문이 줄어들어 한 달에 두세 번만 아버지를 만났다. 대학에 다닐 때는 전화 거는 간격도 벌어져서 한 학기에 거의 한 번 정도 아버지와 통화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진정한 부모와 자녀 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사이가 되어 버렸다.

대학 2학년 때, 나는 오래 전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 어린 시절의 그 사건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런 관계를 끝내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내 생각을 아버지께 이메일로 보내고 답을 기다렸다.

얼마 후에 아버지의 답신이 왔다. 답장을 읽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길 기도하곤 간구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셨을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나는 두려웠고 너무나 외로웠다.

컴퓨터 앞에 앉으니 정말로 외로웠다. 도움이 필요했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를

드렸고 그분의 영을 느꼈다. 마침내 읽을 용기가 생겼다.

아주 짙은 답신에서 아버지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일축해 버리고 어떤 화해도 원치 않는 것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나는 몹시 마음이 상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10년이 넘도록 힘들었던 관계가 고통스러웠다.

의자에 앉아 흐느낄 때 영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나는 “그의 사랑의 팔에 둘러싸였[고]”(니파이후서 1:15) 울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의 존재를 확신했다.

세상의 아버지와는 관계가 소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은 확고하게 내 삶 속에 계신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돌봐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어디에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지상의 아버지와는 관계가 소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6)

에콰도르에 찾아 온 말씀에 대한 갈망

애나 비스비켓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 집 밖에 있는 나무 벽에 기대 앉아 있다. 벤치에 함께 앉은 아이들도 모두 엄마처럼 싱글벙글한 얼굴이다. 파스하고 화창한 토요일 오후이다. 애나는 에콰도르 동쪽에 위치한 밀림 속의 작은 도시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 산다. 오레야나 지부 회장단이 방금 애나의 집을 방문했다. 마침 자매 선교사들이 애나의 집을 방문하던 터라 뜻하지 않게 방해가 되었지만 애나는 개의치 않고 지부 회장단을 안으로 맞아들인다. 그녀에게는 감사할 일이 무척 많다. 그녀는 감사를 아끼지 않고 표현한다.

그렇다고 애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다섯 자녀와 함께 사는 애나는 매일 일거리 찾기도 쉽지 않다. 2009년 8월에 애나가 침례를 받을 때에는 한 자녀만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 그녀가 보인 모범을 따라

세 자녀가 침례 받고 확인 받게 되면서 여러 축복들이 왔다.(한 명은 당시 너무 어렸다.)

그렇다. 애나의 눈은 감사로 반짝인다. 그녀는 오레야나 지부의 다른 회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감에 따라 찾아온 순수한 기쁨을 발견했다.

소망과 함께 시작된 기쁨

2008년 12월 당시에는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정도 회원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수년 동안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변화가 찾아 왔다.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켜 네 가족이 함께 만나 경전을 공부하고 서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느낌이 지금까지도 도시에 스며 있다.

지부 회원인 파니 바렌 가르시아는 말한다.



왼쪽: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애나 비스비킷 자매와 자녀들. 위: 2010년 지부 대회에 모인 오레야나 지부 회원들.

“이곳 사람들은 복음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이 굶주림에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 지역 회원들은 교회로 연락하여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의 전 회장인 티모시 슬로안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발휘하여 회개하라는, 물론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구주의 권유를 따르려는 소망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 2009년 1월 초, 현재 지부 회장인 마르코 비야비센시오는 아내인 클라우디아 라미레스와 함께 취업 제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었다.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 마차라에 위치한 집에서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로 이사를 해야 했는데, 그곳은 에콰도르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라고 비야비센시오 회장은 말한다. “아내와 저는 가족과 함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제의를 받은 직후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9년 2월에 이곳으로 이사 왔고, 지부는 그해 9월에 조직되었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려면 사람들은 먼저 복음의 주인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속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복음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심히 큰 기쁨’(니파이전서 8:12)을 경험하게 해 주며,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영생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44, 46쪽.

봉사하는 기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려는 소망은 자연스레 봉사하려는 소망을 불러 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상호 간의 변화는 마음을 열 때, 겸손할 때, 또 봉사할 때 일어난다.

봉사는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강화시켰다.

“제 부름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요?” 클라라 루스 파르판이 되묻는다. 그녀는 2010년 9월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행복하지요. 제가 다른 자매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새로 침례 받은 자매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같은 행복한 느낌이 지부 회원들의 마음에 널리 퍼졌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로우데스 첸체는 자매들을 강화시키려면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수고는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호부조회

구성원이자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자매들을 방문합니다. 자매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곁에서 도와줍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자매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지부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또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즉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매들이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로우데스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지부 회장님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지부 회장님과 상의하거나 지부 평의회에서 논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자매들의 결의는 지부 전체에 널리 퍼져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지부의 어느 한 가족을 돕는 봉사 활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했어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상호부조회 회원, 선교사 모두 말이죠. 그 경험은

“이곳에는 복음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르코 비야비센시오 회장

왼쪽 아래: 지부 회장인 마르코 비야비센시오 회장과 아내 클라우디아, 그리고 아들. 오른쪽 아래: 클라라 루스 파르판 자매가 다른 지부 회원들과 함께 노년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매우 유익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모사이야서 2:17]임을 알게 되었어요. 봉사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로우데스 자매는 말한다.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

단합에는 강하게 해 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소속감이 생긴다.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모사이야서 18:8~9) 가족처럼 지낼 때 축복이 생겨난다.

파니는 설명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서로를 가족처럼 느낀다는 점이 우리가 지닌 힘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훌륭한 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나눴고, 그렇게 일체감이 형성되어 갔어요. 새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 한 번 안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요.”

애나의 경험이 그 증거이다.

다섯 자녀를 둔 홀어머니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일감을 쉽게 구하지 못할 때에는 일감을 구하느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진이 빠졌다. 지부 회원들이 보여 준 연대감은 어려울 때에 그녀의 가족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회원들이 와서 저와 함께 경전을 읽어 주죠. 그리고 저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저희 가족이 힘들어 할 때는 회원들이

“우리는 이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려 있습니다.”

(이노스서 1:4 참조)

클라라 루스 파르판



비아비센시오 회장과 다른 회원들이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자 세미나리 교사인 로우데스 체체 자매를 방문하고 있다.

함께해 줍니다. 새로운 회원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애나는 말한다.

이 연대감이 지부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처음 28명이 함께 모여 모임을 한 그 일요일로부터 일 년이 막 지난 지금은 교회 회원이 아닌 방문자들을 포함하여 83명이 참석하는 지부로 성장하였다.

지부 지도자들은 지부 대회 전 토요일에 회원과 구도자들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전 구절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

최근 침례 받은 한 형제는 개인 경전 공부와 더불어서 회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경전을 읽으며 개종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몰몬경이 열쇠였어요. 저를 위한 열쇠였죠.” 그는 교회에서 기쁨을 찾았다. 너무도 강하게 복음에 끌려 침례를 받기 전부터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다.

우정은 서로 복음을 나누는 것 이상이다.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는다.

또 다른 최근 개종자인 베르나베 파르도는 말한다. “교회 다니기 전에 친구라고는 그저 함께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뿐이었어요. 회원이 된 지금은 제게 진실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몰몬경을 읽고, 가정의 밤에도 초대해 주었어요. 친구들은 서로에게 봉사했고, 지도 함께 봉사 활동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 삶은 지금 전혀 다르게 변했고,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십일조를 내면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시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클라우디아 라미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항상 청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친분을 쌓아 가면서 형성되는 연대감의 힘에 대해 가르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각 영혼이 주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청년과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목표를

세웁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목표 설정이 동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지요.”

비아비센시오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새로운 개종자에게는 친구와 책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될 필요가 있다고 하신 고든 비헝클리 회장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¹

애나는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그녀의 아들인 호르헤는 교사 정원회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지도자 위치에서 배울 기회를 주려고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아비센시오 회장은 말한다.

변화에서 오는 기쁨

클라우디아는 복음 안에서 봉사하면서

마음 속에 확신이 조금씩 커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 “저는 여덟 살 때 침례 받았어요. 교회에 항상 참석했었죠. 그런데 커 가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에 관해 많이 생각했고,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않을 테니까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었어요. 제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탓에 너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 와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저를 변화시켰죠.”

클라우디아는 선교 사업을 하기 전부터 마르코 비아비센시오와 친구였다. 귀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성전에 참석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결혼할 형제가 바로

왼쪽부터: 비아비센시오 회장과 최근 개종자인 베르나베 파르도; 상호부조회 모임; 파니 바렌 가르시아와 남편 리카르도, 그리고 자녀들; 복음 교리반 공과 시간



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정말 좋은 남편과 함께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죠.”라고 클라우디아는 설명한다.

복음대로 사는 데서 오는 기쁨

열다섯 살인 오스카 레예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지요.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랍니다.”

오레야나 지부 회원들은 복음대로 생활하며 참된 기쁨을 찾았다. 로우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행복해요. 비록 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도 가족이, 즉 영의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참된 기쁨은 어떤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스며든다.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

주
1. 고든 비 헝클러,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참조.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 에콰도르

키 토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오레야나 지방은 거대한 화산들과 안데스 산맥 때문에 풍부한 열대 기후가 생성된 곳이다. 이 지방에는 강과 시내가 서로 얽힌 어마어마한 산림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앵무새와 큰부리새 등 수천 종에 달하는 새들이 서식한다. 원숭이와 나무늘보, 아마딜로와 카피바라 등과 같은 동물뿐 아니라 놀랍게도 분홍색 돌고래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석유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다. 작은 정착지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도시로 변했다.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는 나포 강과 코카 강과 바야미노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현재 도시와 주변 근교에는 약 80,000명 가량이 거주한다.





여섯 살인 코트니는
다운 증후군을
앓지만, 오빠
저스틴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지침서는 “공과와
말씀, 교수법을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어린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다니엘르 퍼거슨

초등학교에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제안을 소개합니다.

만은 초등학교 교사와 지도자들은 자폐증이나 다른 중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와 같이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연령이 같은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한 반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폐아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인지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인 저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돕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제가 배운 원리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와드나 지부 초등학교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셨듯이 봉사한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가르침과 행동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¹ 이를 테면, 주께서는 니파이인을 방문하셨을 때, 어린 아이를 오게 하시어 “하나씩



자폐증이 있는 아들 아이잭과 함께한 글쓴이 다니엘르 퍼거슨.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21) 그러자 천사들이 하늘의 불로 “어린 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제3니파이 17:24)

우리는 모든 어린이를 가르치며 주님의 성역에 참여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린이들을 사랑과 신앙의 불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해로 둘러싸도록 지명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고귀한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시다.”² 우리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돕고자 책임을 다할 때 주께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각 상황에 맞추어 봉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지도자는 어린이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그 어린이를 만나볼 수 있으며, 교사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친해지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 어린이의 집입니다.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배우고 함께 일한다

교사와 지도자는 어린이가 겪는 장애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시작하기에 좋은 곳으로는 교회 웹사이트 lds.org/disability(여러 언어로 제공됨)를 들 수 있는데, 이

에밀리 에스와 발달 장애를 앓는 네 살 난 아들 랜든은 초등학교 회장인 데브라 마루프와 함께 랜든이 좋아하는 것과 랜든을 가르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보살피는 일은 어린이와 부모, 지도자가 단합하고 협력하는 정신으로 협조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특정 장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언을 배우고 추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사와 지도자는 웹사이트를 살펴본 후 어린이의 부모님과 다시 만나 방안을 나누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며,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은 싫어하는지,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와 같은,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린이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잘 돌보기 위해 단결하고 협조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면 반드시 부모와 협력해야 합니다.

교사와 지도자는 어린이를 돌보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며 신뢰 지도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는 아들이 유아반에서 초등학교 반으로 잘 진급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와드의 한 자매님이 감독님과 초등학교 회장님에게 와서 저희 아들을 돕고 싶다고 자청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회장님과 감독단 한 분, 남편과 저는 그 자매님을 만났고, 자매님은 저희 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초등학교의 일요일 일정 계획을 이해하도록 돕자는 목표를 세웠고 실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 후 3년간 계획을 조금씩 자주 수정해야 했지만, 아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또래들과 친해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해와 헌신으로 아들이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과 우정으로 저희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다른 곳에서와 같이 평소 때처럼 지낼 수 있고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인식합니다.

우정과 신뢰를 키워 나간다

교사인 우리는 “장애가 있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을 베풀어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³ 우리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우정이 자라날 것입니다.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사소통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사들이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다가간다면,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춘다.**⁴ 어른이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은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이 어른에게 더 잘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이 방법은 또한 단체 속에서는 집중하기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교사나 보조자는 어린이의 관심을 사로잡아 수업 중에 주기적으로 공과에 대해 한두 문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흥미를 찾아낸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줄 때, 어린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흔히 특정한 장난감이나 동물, 게임과 같은 어떤 물건에 애착을

보입니다. 교사는 어린이에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하고, 공과 중에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는 여전히 어린이의 흥미를 끌 만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한다

대부분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정규 초등학교 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또래 어린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통합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올바른 사회적 상호 작용 및 교회 품행을 배우고 청소년 반 진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래 어린이들에게 한 반이 되는 것은 봉사할 기회를 얻고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서만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우정이 돈독해지는데, 이 우정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느낌과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희 아들이 보육원에 다닐 연령이었을 때,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자주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수업에 빠질 때면 그 여자 아이는 아들을 위해 카드와 그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여자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자라나며 그 여자 아이에게는 그것이 봉사할 기회가 되었고, 아들에게는 교회에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정을 키우기 위해 수업 첫날에 부모나 교사가 어린이를 또래에게 소개하고 재능과 기술,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알려 주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그 어린이에 대해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장애에 대해 말함으로써, 또래들이 그 어린이의 상황과 조금은 익숙치 않은 행동을 이해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설명한다면 또래들은 그 어린이와 친구가 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 어린이를 더욱 활발하게 참여시킬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초등학교 반에 통합시키는 것이 그 어린이와 또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함께 읽고 있는 오드리 에스와 아이잭.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때로 그 어린이의 학교 선생님이 부모 및 초등학교 지도자들과 만나 학교에서 그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었던 기법을 기꺼이 알려 주려 할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기 위해 기꺼이 교회에 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린이를 따로 가르치는 예외를 두거나 다른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LDS.org에 접속하여 Serving in the Church에서 Primary 부분을 살펴보면 더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⁵

교실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어느 초등학교 반에서든 모든 어린이의 상황을 맞춰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속해 있다면 협력 교사나 보조 교사를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 교사와 공과를 가르치고 그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서로 번갈아 가며 하거나, 보조 교사 부름을 주어 특히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전담하여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직원들은 공과 일정을 조정하고, 의사 소통 체계를 개발하며,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해야 합니다. 기도와 의사소통, 그리고 계획은 늘 그렇듯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교화적인 교수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협력 교사나 보조 교사 부름을 줄 때에는 부모가 하루 24시간 자녀와 함께하며 장애 어린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들도 주일학교 반에 참석하거나 다른 부름에서 봉사할 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휴식이 힘을 충전하고 다가올 한 주 동안 겪을 어려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과 계획을 조정한다

교회 지침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모임과 공과, 활동에 가능한 한 완전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공과와 말씀, 교수법을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⁶ 각 반원의 필요 사항을

브루클린 시(왼쪽부터 세번째)는 네 살이며 자폐증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브루클린이 언제나 음악에는 반응을 잘 보였다고 말합니다. 브루클린과 다른 아이들은 손가락 놀이라는 촉각적인 면이 더해지자 더욱 흥미로워 합니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과를 가르치려면 기도와 창의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잘 배우는지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lds.org/disability에 있는 Leader and Teacher Resources에는 공과 조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 제안은 각 장애 제목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LDS.org에서 Serving in the Church 중에 Primary 부분 역시 훌륭한 자료입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조정 내용은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시각:** 대다수 어린이들이 시각 학습자, 다시 말해 그림이나 물체를 보면 쉽게 어떤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학습자들입니다. 협력 교사 또는 보조 교사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 옆에 앉아 수업 중에 가르치는 내용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어린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보조 교사와 함께 그림을 그림 백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과에서 언급된 사항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 **청각:** 듣기를 통해 배우는 어린이들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또한 선생님이 목소리를 사용하여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예를 들어 속삭이거나 놀라서 숨을 헐떡이거나 신나는 부분이 나오면 조금 빠른 목소리로 들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사들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이해하고 계속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과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히 하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원리들을 그 어린이의 실생활이나 어린이가 잘 아는 이야기 혹은 사건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 **촉각:** 감촉을 통해 배우는 어린이들은 물체를 쥐어 보고 느껴 보기를 좋아합니다. 공과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야외라면 교사는 매끄러운 돌이나 가지, 또는 봉제 동물 인형 등을 가져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체를 만원들에게 돌려 모두 돌아가며 만져 보고 살펴볼게 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색칠하기 등도 만져 보기에 유용한 분야입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및 다른 활동에 참여한다

장애 어린이에게 참여는 중요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전 읽기나 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 말씀 순서 등에 그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림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단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지만, 너무 수줍어 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하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는 연단에 서게 하고 자녀가 맡은 부분을 부모가 읽어 주어 어린이에게 그 자리에 섰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자신의 말씀에 관련된 그림을 듣거나 기도를 위해 팔짱을 낄 때 시범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하는 데 사용할 만한 활동 및 유형들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초등회 성찬식 발표.** 성찬식 발표는 일상적인 행사가 아닌 만큼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각별한 지원과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습 시간에 여러 번 참가시키면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조 교사가 그 어린이 곁에 앉아 노래나 말씀 순서 전에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어린이가 회중을 마주할 때 생기는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아 어찌할 줄을 몰라 한다면 어린이와 보조 교사의 자리를 정면과 가까운 측면 좌석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린이는 색칠하거나 그림책을 보거나 다른 어린이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예배당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거나 노래할 순서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갔다가 끝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연단의 의자에 앉아 있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종이 집게 두세 개나 매끄러운 조약돌 등과 같은 만지작거릴 장난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어린이가 속한 반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에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반에서 짧은 연극을 준비한다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대사가 짧은 역이나 말하지 않는 역을 맡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복장을 차려 입은 것만으로도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또래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 발전에 중요합니다.
- **추가 프로그램.** 초등회가 워드 혹은

지부 재능 발표회나 성탄절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에 참가하는 중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사람들이 가득하여 혼잡한 방을 못 견뎌 한다면, 어린이가 속한 반이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부모는 자녀가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먼저 집으로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거두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두었기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각자를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기에 성신을 통해 부모와 지도자에게 속삭여 우리 가족과 우리가 봉사하는 자녀의 삶을 돌보고 축복하며 이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시간을 내어 제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 준 초등회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사랑을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인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때로 좌절감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영감을 얻으며,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특별한 어린이를 돌보는 청지기 직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면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8.6: 21.1.26을 참조하십시오.

주

1. 예를 들어, 마태복음 8:1~17; 9:1~13, 18~38 참조.
2. 엠 러셀 벨라드,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성도의 빛, 1994년 10월호, 40쪽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26.
4.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71쪽 참조.
5. "Teaching All Children,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lds.org/pa/display/0,17884,5727-1,00.html](https://www.lds.org/pa/display/0,17884,5727-1,00.html) 참조.
6. 지침서 제2권, 21.1.26.



교회 지침서에 담긴 지침

교회 지침서에는 교사와 지도자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에 도움이 될 훌륭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서 "장애가 있는 회원"(21.1.26) 편은 지침과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보조 조직에 해당하는 장마다 추가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서 제1권에는 침례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색인에서 "장애"를 찾아 보십시오.

이 책이 정말 당신에게서 온 책임니까?

막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한 지역의 스키 리조트에 있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청소를 마쳤을 때 다른 한 동료가 책을 한 권 건네며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책을 받았다.

표지에는 몰몬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표지 안에는 그 동료 직원이 내게 쓴 글이 있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있는 참된 책이며, 이 책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것임을 확신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바로 그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

읽으면서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편안함의 느낌이 나를 감쌌다. 성경 외의 다른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다. 애초에 몇 쪽만 읽어 보려던 마음이 바뀌어 몇 장을 더 읽게 되었다.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니파이전서 15장 11절에 이르렀다.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나는 이 책이 참된지 알아봐야 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이 책이 정말 당신에게서 온 책임니까?” 그 즉시 “그러하니라”라는 확고한 응답을 느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에 ‘와, 이 책을 다 읽어야겠네!’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직장 동료가 내게 책을 한 권 건네며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석 달 후, 물문경을 다 읽은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 뵙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을 지나가는데 건물 앞에 눈에 띄는 모자이크가 하나 있었다. 급히 주차장으로 차를 돌려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이 어떻게 이 건물에 있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소개했다. 나는 차에서 물문경을 꺼내어 읽을 때 표시해 둔 구절들에 관해 그 사람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진정시킨 다음에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 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집 주소를 주었고 그 후, 두 장로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궁금해 하던 모든 질문에 열심히 답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새로운 개념들은 내가 마치 다시 기억해 낸 것처럼 아주 친숙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5주 뒤에 나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 뒤로 32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 물문경을 읽는다. 이 책은 내 가족과 내게 지속적인 빛과 방향의 근원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판 위에 새긴 고대 선지자들, 금판에 있는 진리를 번역하고 출판하기 위해 박해와 시련을 견뎌 낸 조셉 스미스, 그리고 오래 전에 용기를 내서 내게 물문경을 전해 준 그 동료에게 정말 감사하다. ■

신시아 앤 리, 미국 네바다 주

복음에서 평화를 얻으며

우 리 가족은 내가 여섯 살 때 교회에 들어왔고, 여덟 살 때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부모님은 새로 찾은 신앙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셨고, 나는 자라나며 기도와 개인 경전 공부, 기타 복음의 여러 측면을 통해 커다란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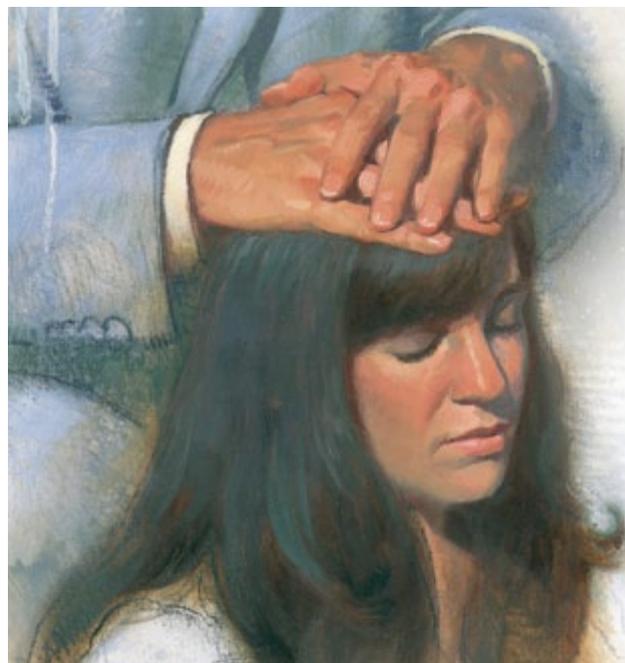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이 지닌 참된 가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호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선교부 회장님은 그 소식을 전해 주시며, 구원의 계획을 강조하는 신권 축복을 해 주셨다. 그 축복은 이후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친 개인 공부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위대한 교리를 배우고 그 참된 가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처한 상황을 구원의 계획이라는 빛으로 비춰 보게

되었고, 참으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구원의 계획은 나에게 무척 소중해졌다.

선교 사업 이후로도 경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다수가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고 이생이 끝난 후에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인봉되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인생에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삶이 반드시 힘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에 나는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평화와 위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사이나 로저스, 뉴질랜드



선교부 회장님은 그 소식을 전해 주시며, 구원의 계획을 강조하는 신권 축복을 해 주셨다.

농작물이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유 타 로건 성전에서 인봉 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졌다. 특히 십일조를 항상 내겠다고 주께 굳게 약속했다. 인봉 받은 직후 우리는 미국 와이오밍 주로 이사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넓이가 약 1제곱킬로미터인 넓은 우리 농장에 경작 준비를 시작한 때가 4월 하순이었다. 산쪽을 불태우고

땅을 고르고 도랑을 팠다. 종자를 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친 상태였다. 나는 성장 기간이 짧은 보리를 심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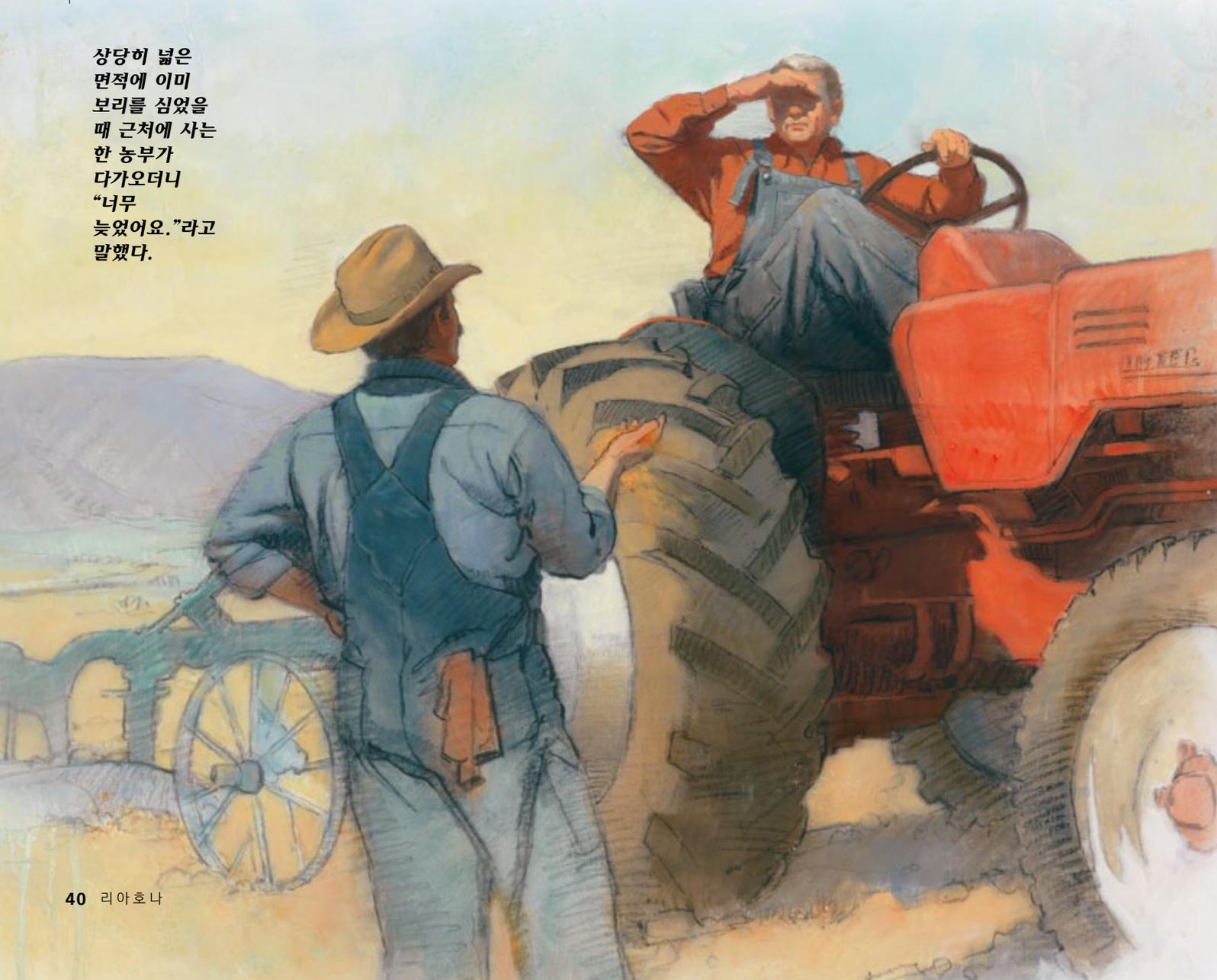
상당히 넓은 면적에 이미 보리를 심었을 때 근처에 사는 한 농부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괜히 시간과 돈,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8월 21일 경에는 농작물이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는 흙을 한 줌 집더니 말을 계속했다. “갈퀴질을 하고, 불태우고,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흙이 다 말라 버렸어요. 파종을 해도 습기가 없으면 싹이 트질 않아요.”

땅이 너무 말랐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미 보리를 사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계속 심기로 걱정했다. 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한 십일조를 온전하게 냈기 때문에 하나님

상당히 넓은
면적에 이미
보리를 심었을
때 근처에 사는
한 농부가
다가오더니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었다. 보리를 다 심은 다음에 나는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다음 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심은 보리 종자나 언덕 위에 있는 부드러운 흙이 씻겨 나가지 않을 정도로 잔잔히 내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완벽한 비였다. 우리의 열렬한 기도와 오랫동안 들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봄과 여름 내내 우리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에 12~14시간씩 일하며 물을 대고, 울타리를 치고, 수확할 준비를 했다. 십일조를 내고 와드 부름에 열심히 봉사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 농작물이 예쁘고 풍성하게 자랐다. 보리들이 쑥쑥 자라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날씨가 너무 추워 농작물이 죽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농작물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렸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말라기 3:11)

염려했던 8월 21일이 찾아왔고 서리가 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밭에 나가보니 우리 농작물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 몇 주 뒤에 우리가 추수한 보리는 트럭 여러 대를 가득 채웠고, 우리는 보리를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 다음 해 여름, 목초용 풀과 보리가 자라는 우리 땅은 산쑥이 무성한 주변 풍경 가운데서 연한 녹색 빛을 발했다. 8월 하순의 어느 날, 밭에 물을 대고 있을 때 검은 폭풍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니야, 우박은 안 돼!” 나는 우리 농작물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폭풍이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우리 밭의 남쪽과 북쪽 방향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북쪽 울타리로 걸어갔다. 우박이 울타리 바로 안쪽에는 떨어졌지만, 거기까지였다. 걸음을 서둘러 남쪽 울타리로 갔다. 거기도 울타리 바로 바깥쪽까지만 우박이 떨어졌다. 우리 농작물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으며 굉장히 놀라워했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라기 3:12)는 말라기의 말씀이 생각났다. 참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벤 이 파울러, 미국 유타 주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1997년 11월, 나는 칠레 콘셉시온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성전에 들어가 빛과 지식을 더 받고 싶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의문들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정말로 합당할까? 줄곧 주께 실망을 드렸는데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환영해 주실까?’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을 찾아가 마음을 괴롭히는 의문에 대해 말씀드렸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내 삶이 정돈되어 있고 배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났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다시 의문들이 고개를 들었다.

성전 안이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그 안에 있을수록 과연 내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중에 해의 왕국실에서는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행복으로 빛나는 듯 느껴졌다. 그런데 문을 나서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며 그곳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 서서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를 돌려 세우려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벽에 걸린 그림에서 팔을 벌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속에서 울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따뜻한 느낌이 온 몸에 흘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생각나는 말은 한 마디뿐이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구주에 대한 감사로 넘쳤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다고 느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임을 알았다.

비록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성전에 갈 때마다 그 날의 기쁨이 되살아나며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말씀이 되살아난다. ■

카리나 다니엘라 파즈, 아르헨티나 살타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된 세대입니다.

선 지자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청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과도기적인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값진 진주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나
아브라함은 내 조상의 거주지였던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거주할 다른 곳을 얻음이 내게 필요한 줄
깨달았고”(아브라함서 1:1) 성인으로서 홀로 나가
자신만의 삶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평화와
안식이”(2절)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더 큰 행복과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여 얻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청년
성인들을 포함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 하나인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십시오.

후기 성도인 여러분은 성전과 성전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깝거나 먼 친척들 중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보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을 서로 연결시키고, 성전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지식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 일을 하도록 특별히 준비된
세대입니다. 저의 조모인 뱅거터는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깊은 간증이 있으셨으며 동시에
이 사업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오래 전에 25,000명이나 되는 조상 기록을
작성하실 때, 할머니는 이름을 양식에 하나하나
직접 기입하셨습니다. 만약 당시에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할머니는 무척 고마워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회장 이 편에서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이 할머니의 자손 중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주님은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어 여러분의 마음이 조상에게
향하게 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지상이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2~3 참조)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분의 재능은 이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업이
시급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시대에



여러분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이
시급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드나 지부에서는 이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 개인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될 기회입니다. 이 추천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 추천서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제일회장단에서 최근에 내려온 지시는 성전 추천서와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에 대한 교회의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일회장단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이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지킬 만큼 충분히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십 대 후반 또는 이십 대 초반의 독신이 선교사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성전 결혼을 위해 약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 추천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¹ 하지만 만 12세 이상인 모든 합당한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지니고 다닐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분들은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필수적인 추천서 없이 지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속죄는 실제적인 것이며, 죄는 합당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바쁘게 돌아가게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과 기술로 매우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해 나갈 때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주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도해 줄 영을 분명히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와드, 종교 교육원, 상호부조회 및 신권 정원회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우정을 쌓고 의미 있는 사회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더 많이 쌓아가고 또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아 영원한 가족을 이룰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친구들과 함께, 또는 정원회사 상호부조회, 종교 교육원을 통해 참여할 때 이러한 활동은 평생 신앙을 증진시켜 주고 행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은 미래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강화하고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참됩니다. 복음이 참되기에 젊은 세대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이 되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조상의 축복을 구하고, 그리하여 더 큰 지식과 행복, 평안, 안식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

2008년 3월 2일,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주 1. 2007년 9월 7일, 제일회장단 서신 참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한다.

- 가족이나 와드 혹은 지부 회원, 종교 교육원 반원,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해 본다.
- 성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와드나 지부 활동을 지지한다.
- 가능하다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지고 간다.
-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돌본다.

기록을 수집한다.

- 사진이나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기타 기록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한다. 전자매체 형태로 자료를 소장한다면 역사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가족 기록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New.familysearch.org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사용 지침 프로그램과 와드 혹은 지부 가족 역사 전문가가 그 사이트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사이트 사용에 익숙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주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여행 기회를 활용한다. 조상이 살았던 지역을 방문한다면 지역 묘지나 도서관

혹은 조상에 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장소를 방문할 시간을 계획해 본다.

기록을 만든다

- 일지를 기록한다.
- 가능하다면,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를 가져간다.
- 전 세계에서 올라온 기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색인 작업(indexing.familysearch.org)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 가족에게 그들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말해 준다. 인터뷰를 기록한다.
- 가족 블로그를 만든다. 가족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쓰거나 사진과 회고담을 올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 이메일과 전화, 편지 등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꾸준히 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발전시킨다. 가능한 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을 계획한다.
- 지역 묘지를 방문해 본다. 가능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묘비를 사진으로 찍어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온라인에 올린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묘지 규모가 작을 경우, 훌륭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의 가족 역사에 도전하다

크리스티나 알베리아

우 리 청년 성인 와드의 페이지 감독님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부모와 조부모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세대의 임무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지상에 보내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셨다. 그런 다음, FamilySearch 색인 작업 과제가 주어졌다. 사실상 감독님은 우리 와드가 10만 개의 이름을 색인 작업하도록 제안하셨다.

엄청난 작업처럼 보였다. 한 사람마다 이름 천 개씩을 색인 작업해야 하는 양이었다. 페이지 감독님은 누가 그

목표를 수행할지 물었고 우리는 모두 손을 들었다.

그 과제는 곧바로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나는 컴퓨터에서 FamilySearch 색인 작업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사용 지침서를 읽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다. 손으로 쓴 필체를 판독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한 작업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완수할 때마다 더 큰 자신감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칠레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어로 된 이름을 색인 작업하기로 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그 경험은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다. 나는 각 사람이 성전 축복을 받을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 작업이 단순히 이름을 입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곧 나는 색인 작업이 일요일에 해야 할 중요한 활동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고, 교회에 다녀온 후에 가끔은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색인 작업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음악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더욱 힘을 얻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보다 더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업도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한 백성으로서 방패와 보호막으로 보호해 줍니다.”¹

청년 성인들은 “대적의 불화살”(니파이전서 15:24)로 특히 공격을 받는데 이 말씀으로 나는 보호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와드 회원들이 그 같은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으므로 친구 한 명과 함께 색인 작업 그룹을 조직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컴퓨터를 가져왔다. 이미 색인 작업에 친숙한 사람들은 컴퓨터를 공유하며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와드 역원들도 우리 목표를 도와주는 활동들을 개최했다. 누군가가 낙심하면 서로 격려해 주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서로에게, 함께 봉사함으로써 유대감이 커진 것을 보고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천 명의 이름들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와드는 10만 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감독님의 도전 목표는 숫자에 있지 않았다. 이 일로 우리는 가족 역사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고, 봉사와 희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그 과제가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느꼈다.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면서 나는 또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리야호나, 2010년 10월호, 35쪽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어떤 것입니까?

오 랫동안 교회는 100여 개국 이상에서 계보 기록을 수집해 왔습니다. 기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왔으며, 지금은 자원 봉사자들이 그 기록들의 디지털 화상을 내려받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색인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누구나 familysearch.org에서 온라인으로 색인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색인 작업 프로젝트는 여러 언어로 가능합니다. indexing.familysearch.org로 가서 날육 커지고 있는 색인 작업자 사회의 최신 회원이 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가끔 저에게 상반된 충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혼은 가족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형제남매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두 분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자신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님이 뜻을 같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분들이 마음 바꾸길 원치 않는다면 계명을 어기라는 요구가 아닌 한 강한 느낌을 받는 쪽의 충고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주시는 충고가 훌륭하지만,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라 배구단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의견이 다르다면 두 분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물어본다면, 기도하고 가장 좋은 느낌을 받은 것을 결정했다고 친절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잘못된 것을 하라고 충고한다면, 옳은 것을 선택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함께 보내자고 요구하신다면 교회에 다녀와서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이해시키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감독님께 여쭙보세요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께 조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우리를 도울 권능을 허락하셨으므로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서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의 충고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자신이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셉 에스, 17세, 페루 라리베르타드 주

새로운 대처 기술을 익히세요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혼에 대처하고 훌륭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과 같은, 삶을 바꾸는 사건은 얼마간 힘든

시기를 거치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에 대해 배우고 몇몇 새로운 대처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처할 방법을 알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좋아하는 친척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감독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기 어렵다면 그분들께 편지를 써 보십시오.

제임스 피, 17세, 필리핀 세부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상반되는 충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어느 종파가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어느 충고를 들어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확실한 응답이 왔으며 제가 따라야 할 올바른 조언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타 오, 17세, 가나 웨스턴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조언을 가장 받고 싶은 두 분이 서로 상충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두 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결국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주님은 어떤 방법에 동의하실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거절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경쟁이 아닌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할 것이며 아마 그분들도 비록 그 결정이 정확하게 자신이 제시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니스 에이치, 18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기도가 도움이 돼요

부모님께 조언을 부탁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충고는 소중하지만 서로 상반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와 조언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어 에이치, 17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니파이의 모범을 따르세요

선교사인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니파이의 순종의 모범을 참조합니다.

니파이는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때마다 그 일이 훌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렸을 때 부친과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니파이는 부친이 인도를 간구하도록 모범으로 이끌었습니다.(니파이전서

16:18~25 참조)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십시오. 하지만 한 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조언을 주신다면

그 조언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정중하게 말씀드릴 용기를 내십시오. 가장 좋은

이유는 형제님이 옳은 일을 선택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카필러 장로, 21세,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무엇이 옳은지를 아십시오



제 부모님은 종종 다른 충고를 주셨지만 저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압니다. 이 진리는 제가 어느 조언을 따라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단순히 성신의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감독님을 찾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리카 시, 18세, 브라질 바이아 주

지도자들에 의지하세요

언제나 우리 지도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청년 및 청년

조직을 통해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기 위해

부름 받았으므로 영감과 답변의

훌륭한 근원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감독님에게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성별되신 분들입니다.

레베카 에스, 15세, 미국 워싱턴 주



치유와 희망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며 속죄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과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희망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1쪽.

다음 질문

“제 친구 한 명은 정말로 저를 불쾌하게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2년 3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org, liahona@ldschurch.org,

Liahona, Questions & Answers 3/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주님의 친절한 자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충실과 순종만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종종 주님의 시간대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물론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저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가 실제적인 것이며 그런 일이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주께서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대를 통해 그 자비를 분별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축복이고 힘이며, 보호와 확신, 인도, 사랑이 담긴 친절, 위안, 지지,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 덕분에, 또 그분을 통해 받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사람의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 그의 자비를”(교리와 성약 46:15) 알맞게 베푸십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보혜사 없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성신인 “다른 보혜사”(요한복음 14:16)를 보내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8 참조)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풍성하고 친절하신 자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 신앙의 은사와 우리 능력 저편까지 미치는 개인적인 확신은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두 가지 예입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 양심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친절하신 자비의 예입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신체적인 한계와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끈기와 불굴의 정신도 구주의 친절하신 자비의 예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지난 2003년 12월 이라크에서 남편을 잃은 네 아이의 어머니가 한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충실한 자매님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극적으로 삶에 변화가 일어난 뜻밖의 현실 속에서 이 훌륭한 자매님이 상기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낙을 받아 성탄절 카드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족에게!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으로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매님에게 가장 확실한 영적 확신과 증거가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시간대를 통해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를 분별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빠,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성탄절 안부에서 언급한 헤어져 있다는 말은 군 복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에게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영원한 동반자요 아버지로부터 티끌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가장 필요한 영적인 확신과 간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충실함, 순종, 겸손은 우리 삶에 자비를 불러들이며, 종종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중요한 축복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신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스테이크 내에 있는 13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름을 외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남 청년의 사진을 가지고 독서 카드를 만들어 출장을 갈 때에도 다른 때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권 지도자는 곧 모든 청소년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신권 지도자는 사진으로만 알게 된 한 청남에 대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그 청남이 흰 셔츠에 선교사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남은 옆에 앉아 있는 동반자와 함께 한 가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남은 손에 몰몬경을 들고 있었으며,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신권 지도자는 꿈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후에 있었던 신권 모임에서 그 신권 지도자는 꿈에서 본 그 청남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그 지도자는 그 청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몽상가는 아니에요. 이 스테이크에 있는 어느 특정 회원에 관해서도 꿈을 꾸는 적이 없는데, 처음 형제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대해 말할 테니 잘 들어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실과 순종만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신권 지도자는 꿈에 대해 말해 준 뒤 그 청남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 청남은 감정을 억누르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가 누군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 청남과 신권 지도자가 나눈 나머지 대화는 정말 중요했으며, 그들은 그 후 몇 달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만나 같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남은 영감 받은 신권 지도자를 통해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충실과 순종만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종종 주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 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담백함, 감미로움, 일관성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을 주지 못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쓸데없이 설명하려고 할 때, 논리와 이성으로는 인생의 불공평함과 불평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필멸의 경험과 평가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때, 우리가 완전히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로 축복을 받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만큼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20 참조)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받도록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파이전서 1장 20절에서 택하신이라는 말은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사전에서 택하신이라는 말은 선별되고, 우선적으로 취하여지거나 뽑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혹은 택하신 사람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¹

이 메시지를 잘못 듣거나 읽는 일부 사람들은 개인 생활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며 “나는 확실히 선택되거나 선택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사가 좀 더 의롭게 보이거나 높은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속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택함을 받느냐 혹은 아니냐는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택함이라는 말의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보라.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어찌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여 그들이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함이니”(교리와 성약 121:34~35).

저는 이 구절들이 암시하는 것이 무척 직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름이 올려지길 바랄,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람 명단 따위는 없습니다. 그분은 “선택된 사람들”을 한정된 소수에 국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순종입니다.

에녹은 이 교리의 요지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다음 구절에서 택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에 주목하십시오.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모세서 7:32~33)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선택의지라는 은사의 근본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고,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초대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성구는 모세서 1장 39절입니다. 이 구절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업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교리와 성약에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구절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자주 인용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라, 그러하도다. 네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네 일이니라.”(교리와 성약 11:20)

따라서 아버지의 일은 그분의 자녀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택함을 받고, 성신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영감에 찬 권고, 즉 우리 시대와 상황과 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한 권고를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고양되고, 교화되며,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으며, 강화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축복으로 받은 개인적인 영감과 권고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들에 따라 행동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시편 145:9).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것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충실함, 순종은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자비가 임하게 하고 그 자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그분의 종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친절하신 자비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각자 이 후기에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우리를 강화하고 도울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풍성하고 친절하신 자비에 대한 감사로 늘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2판, (1989), “Chos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처음 하는 기도부터
처음 부르는 노래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경험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다.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안다는
것은 독특하고도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다 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들에게 대한 경전 기록 세
가지를 소개한다.

- 스테반(사도행전 7:56 참조)
- 조셉 스미스(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교리와
성약 76:20 참조)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9)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분

“ 이 교회의 위대한 일반적인 교리들 중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한 분의 개체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3쪽.

단 한 분뿐인 참된 하나님

“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인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하나님은
엘로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부모의 모범”,
리아호나, 1985년 1월호, 72쪽.



하나님 아버지께 귀 기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신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을 때(마태복음 3:17 참조)
-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마태복음 17:5 참조)
- 니파이에게 주신 계시에서(니파이후서 31:11, 15 참조)
- 미대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제3니파이 11:7 참조)
- 첫번째 시현에서(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구주의 사명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또 모든 시대와 나라에 걸쳐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¹

그분은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²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를 알게 될 것입니다.”³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⁴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십니다.”⁵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또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⁷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2. *교리와 성약* 130:22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0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0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39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0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1쪽.

하늘 부모, 강력한 진리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에 나오는 개념과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한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영의 계보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견해는 의로운 선택을 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최선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훌륭한 개념”,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25쪽.

높은 표준의 소리



힐러리 와킨스 레먼과 나눈 담화 내용

화 려한 불빛, 소리 지르는 군중. 페이스북에 쌓인 수천 명의 팬들. 17세 게어손 산토스는 포르투갈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idolos*(아이돌) 음악 예능대회에서 최종 10위 안에 들었을 때, 그의 성공이 가져다준 명예와 주위의 시선에 적응해야 했다. 게어손은 이 유일한 기회를 복음 전파에 이용하기로 결심했고, 신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꺼이 “몰몬 참가자”라고 대답하면서 순식간에 전 포르투갈 매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어떻게 *idolos*에 나올 결심을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idolos*는 제가 정말 즐겨 보는 텔레비전 쇼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연주하기를 좋아했고 언젠가 음악 대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올해, 전 주저하지 않고 쇼 참가를 위해 그냥 혼자 등록하고 아버지와 함께 오디션에 갔습니다. *idolos*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idolos*와 함께 한 모든 경험은 예외 없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는 길에 놓여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어떤 선교의 기회가 있었나요?

하루는 다른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저는 제 신앙과 교회 표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최종 후보 각각에게 제가 믿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일부는 교회 표준이 정말 보수적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외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런 높은 표준을 따르는 저를 칭찬했습니다.

***idolos*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텐데요.
교회 직책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나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 읽고, 세미나리에도 참가하며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성찬을 취합니다. 저는 현재 선교

이름: 게어손 산토스

나이: 17세

장소: 포르투갈 세투발

취미: 노래, 연기, 기타 연주, 영화 감상, 자매들과 춤추기, 형과 음악 작곡하고 연주하기, 음악 학교에서 공부하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일입니다. 저는 워드 반주자, 워드 선교사, 또한 제사 정원회에서 감독 보조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회에 전념해야 했지만 먼저 주님의 일을 하기로 확고하게 다짐했습니다. ■

우리들 공간



"팬더 곰도
왔고, 돼지도
왔고, 호저도"

삽화 발 제드릭 베이글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 리 가족이 견뎌 낸 시련 가운데 하나는 제일 큰 형이 병들었다가 얼마 후에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시련을 이겨 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형,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압니다.

이 시련은 주님이 다른 시련에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켜 더 강해지도록 돕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압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카밀라 알, 18세,
필리핀, 남 타갈로그

여러분의 이야기나 사진, 의견을 liahona@lds.org에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성명, 와드(또는 지부),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깨끗이 하는 방법

십 이사도 정원희 회장인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생각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우리 생각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좋아하는 찬송가를 정하고 성전 사진을 거는 것입니다. 침실에 그 사진을 걸어 두면 좋습니다. 옷을 정숙하지 않게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 속으로 찬송가를 깊이 새겨 보거나 성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마음 속에 남아 있으면,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 보세요.

조셉 디, 20세, 아이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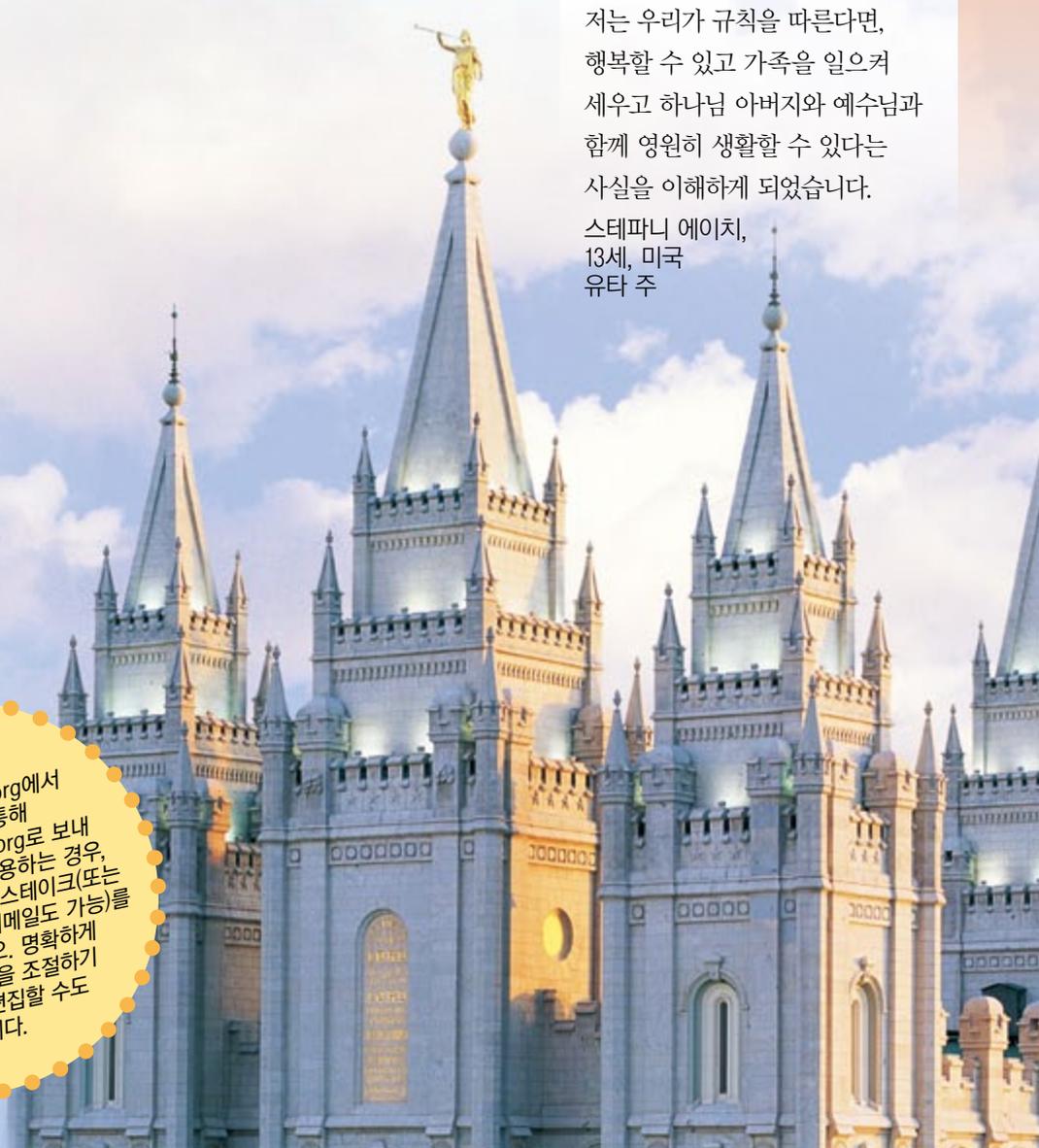
1. 보이드 케이 패커,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리아호나*, 2008년 4월호, 31쪽 참조.

규칙이 너무 많나요?

지 난 해 동안 저는 교회에 규칙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과연 하늘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겪었던 시련을 왜 나는 겪지 않았을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규칙들을 따랐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규칙을 따른다면, 행복할 수 있고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 에이치,
13세, 미국
유타 주





언니 마나투의 성전 결혼을 축하하는 사아네(오른쪽)와 아멜리아(가운데)

통가에 있는 마푸아 바에아 블로우 홀(파도에 의해 공기의 압력이 상단의 구멍으로 물을 솟구치게 하는 현상-웁긴이)의 아름다움과 힘은 놀랍다. 4.8 킬로미터에 걸친 통가타푸 섬 해안선을 따라 파도가 부서지면서 수백 개가 넘는 화산암 틈새로 스며들어간 물이 공중으로 18미터 높이까지 솟아오른다.

16세인 사아네는 파도가 칠 때마다 햇살과 물보라가 어우러져 한바탕 멋진 춤을 선사하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아름다운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호기심이나 경이로움에 빠져 너무 가까이 다가선 방문객들은

방심하다 파도에 휩쓸려 물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다로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

마푸아 바에아의 위험한 면모는 특히 순결과 관련된 유혹의 힘에 대한 영적 경고를 생각하게 한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합당한 경계선을 지킬 때 아름답지만, 꺾에 빠져 안전 지대를 벗어난다면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다.

순결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다

사아네의 언니가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에서 결혼하던 날, 사아네는 언니의 행복을 볼 수 있었다. “행복해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곳에서 결혼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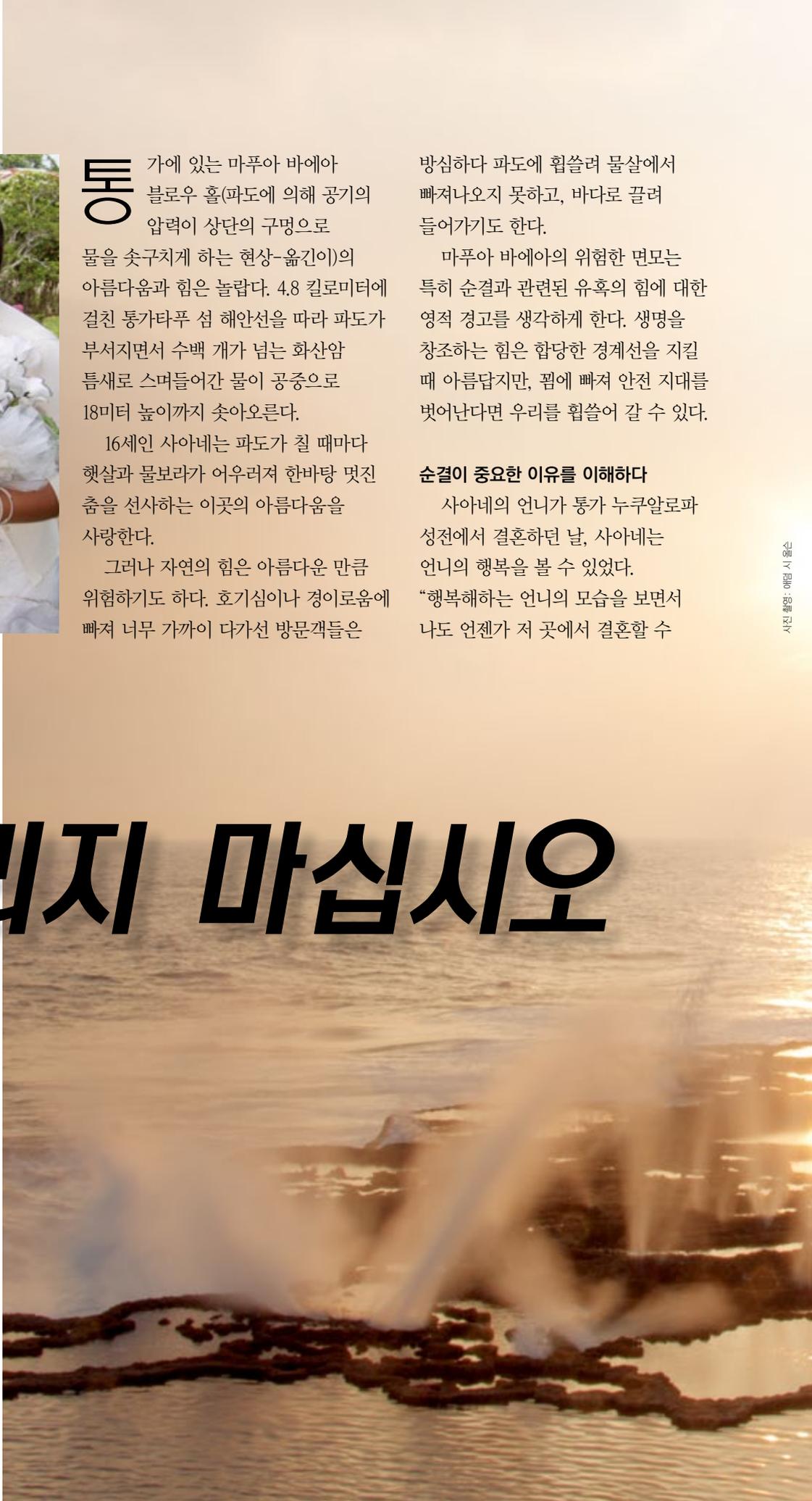
사진 촬영: 애덤 시 올슨

휩쓸리지 마십시오

한 통가 소녀가 난간이 필요한 적절한 이유를 들려준다.

마푸아 바에아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더 보려면 liahona.lds.org에 접속해 보십시오.

순결에 관한 동영상(영어)을 보려면 lds.org/youth/video/chastity-what-are-the-limits?를 찾아보십시오.



있도록 합당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겨났어요.”라고 사아네는 말한다.

하지만 사탄은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사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 밖에서도 성적인 애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잘못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도록 주신 힘을 오용하는 것은 영적, 정서적,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죄이다.¹

사아네는 이렇게 말한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기세로 노력하죠. 만약 제가 순결의 법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결혼할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난간을 존중하다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마푸아 바에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통가 정부는 일정한 장소에 난간을 설치했다.

사아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난간, 즉 표준을 주셨다고 믿는다.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을 경전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면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아네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난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자신의 난간을 세우다

순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난간 너머로 몸을 얼마나 기울일 수 있나 시험해 보려 한다면 분명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스스로 부적절하게 성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할수록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더 힘들어진다.

교회가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아네는 마주할 수도 있을 상황에 복음 표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난간을 만들었다.

사아네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아홉 가지 약속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과 데이트할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 포스터는 사아네에게 난간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또 다른 개인적인 난간으로는 성적인 느낌을 자극할 만한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지 않고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²

사아네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표준을 높게 세운다면 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지대로 돌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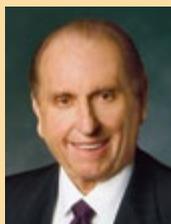
마푸아 바에아에서 급류에 휘말리는 사람들처럼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장소에 머물게 된다. 성적인 죄라는 강력한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구주와 그분이 세우신 종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안전 지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도 어렵게 되돌아 왔는지에 상관없이 결국 목표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주께서 주신 표준을 지키고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힘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누릴 준비가 될 것이다.

사아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소망해요. 제가 순결의 법과 다른 계명을 지킨다면, 제가 꿈꾸는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거예요.” ■

주

1. 신앙에 충실함(2004), 92쪽 참조.
2. 신앙에 충실함, 95쪽 참조.



해의 왕국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장래에 성전 결혼을 할 수 있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만큼 달콤한 사건이나 그날만큼 성스러운 때는 없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여러분은 찬란한 기쁨의 일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십시오. 유혹이 이 축복을 앗아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모범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113쪽.

침례탕에 물이 없어요

침례탕을 채울 물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있었을까?

시오사이아 나에아타 이세

비 내리는 8월에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맞은 그 아침, 시계가 7시 45분을 가리킬 때였다. 그날 우리(프리타운 구역 전임 선교사들)에게는 침례식이 있었고, 날씨가 어떠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때 지부 회원인 알류 형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 고유어인 크리오 말로 급하게 말씀하셔서 통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형제님에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숨 돌린 알류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아타 장로님, 침례탕을 채울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이 없어요.”

나는 연락을 주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 곧바로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가마 장로가 멜로우 근방 산에 있는 폭포와 물웅덩이를 생각해 냈다. 우리는 그곳에서 침례식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필요한 허락도 받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산 입구로

모였다.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하지만 굳은 결심으로 모인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남자와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축축하고 미끄러운 길을 즐거운 대화 속에서 걸어 올랐다. 산을 오르는 중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길을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빗방울이 굵어지자 일부는 조금씩 풀이 죽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갔다. 울퉁불퉁한 길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목표한 그곳에 도착했다. 우리 마음은 행복했지만 머리 위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침례식을 준비했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부르며 침례식이 시작되었다. 개회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침례 장소로 이동했다. 세차게 떨어지는

삽화: 앨런 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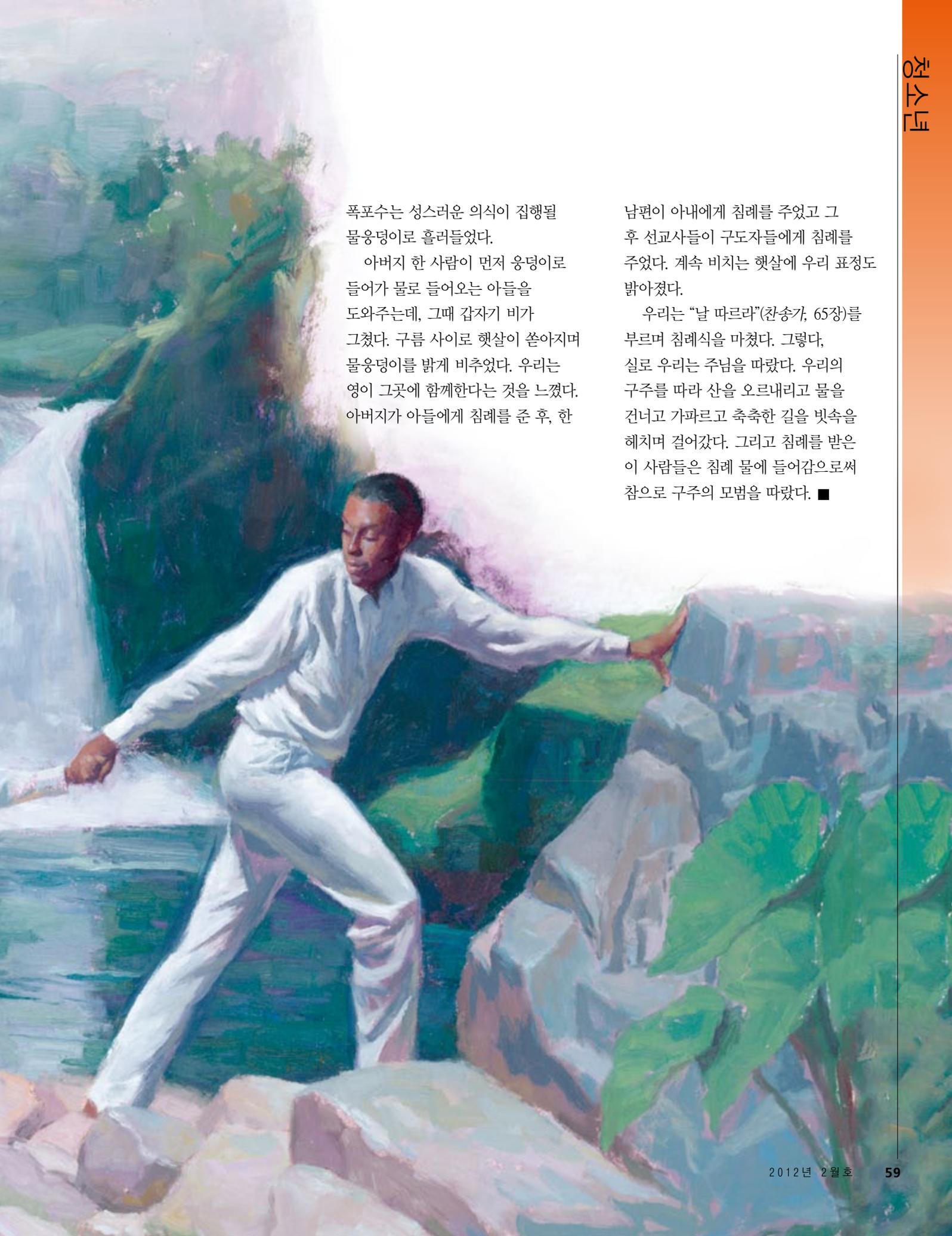


폭포수는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될
물웅덩이로 흘러들었다.

아버지 한 사람이 먼저 웅덩이로
들어가 물로 들어오는 아들을
도와주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며
물웅덩이를 밝게 비추었다. 우리는
영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례를 준 후, 한

남편이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후 선교사들이 구도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계속 비치는 햇살에 우리 표정도
밝아졌다.

우리는 “날 따르라”(찬송가, 65장)를
부르며 침례식을 마쳤다. 그렇다,
실로 우리는 주님을 따랐다. 우리의
구주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고 물을
건너고 가파르고 축축한 길을 빗속을
헤치며 걸어갔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침례 물에 들어감으로써
참으로 구주의 모범을 따랐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인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 왕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의 혈통은
고귀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를 낳아 준
부모의 모범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장할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뽑자

애니 비어



우리는 손가락 끝으로 하는 많은 재미난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독서나 바깥 놀이, 또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우리 독자들과 그 가족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 영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 초에 6개 “TV 티켓”을 받습니다. 하나는 다같이 TV를 시청하는 시간 티켓입니다. 각 티켓 뒤에는 시청하기 전에 우리 방 청소, 숙제, 집안 일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독서하고, 함께 놀이를 하고, 친구들과 바깥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트레버와 니콜레트 시, 10세 및 13세, 미국 유타 주

한 장의
TV 티켓

우리는 TV 시청보다 독서를 좋아합니다! 해야 할 모든 일과 집 청소가 끝난 후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엘리, 제이리드, 이선, 애비 에이치; 8세, 11세, 2세, 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우리는 경전 이야기들과 적절한 음악을 MP3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고, 학교 가기 전이나, 오후에 우리 모두가 숙제나 집안 일을 끝내기 전에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TV에서 어떤 채널은 전혀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는 대신 우리는 바깥에서 놀고 정원을 손질하거나 함께 보드게임(말판 놀이)을 합니다. 우리 생활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은 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사라, 스티븐, 크리스티, 제이슨 엘; 7세, 15세, 20세, 18세;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우리들 이야기

서로에게 봉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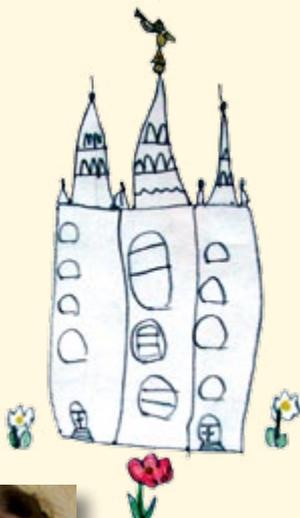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저는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께 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말벗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자 할머니는 무척 놀라시면서도 행복해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대화를 나누고 간식도 만들고 리아호나도 함께 읽었으며 기도를 드린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과 번개, 천둥, 비, 우박과 함께 폭풍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폭풍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없었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비니시오 알, 10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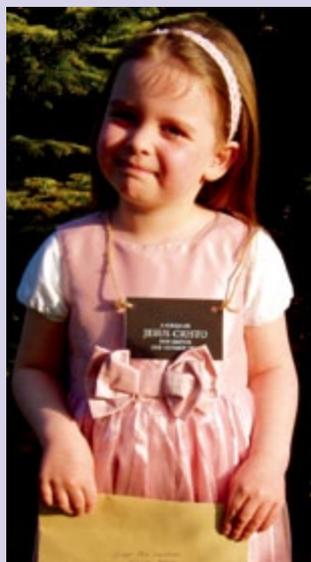
**솔트레이크 성전,
이브 디, 4세,
우크라이나**



**붉은 광장에서 서 있는 자매 선교사,
에밀리 디, 9세, 우크라이나**



독일에 사는 다섯 살 난 소녀 **미아 린** 열은 벌써부터 선교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미아가 음식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 친구의 엄마는 미아의 엄마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미아는 친구를 초등학교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에 대한,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아버지와 저는 증조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제 강아지가 어떤 소년이 탄 자전거에 부딪혔습니다. 강아지는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소년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제가 따라갔지만 강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강아지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강아지를 찾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아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스테파니 피, 8세, 온두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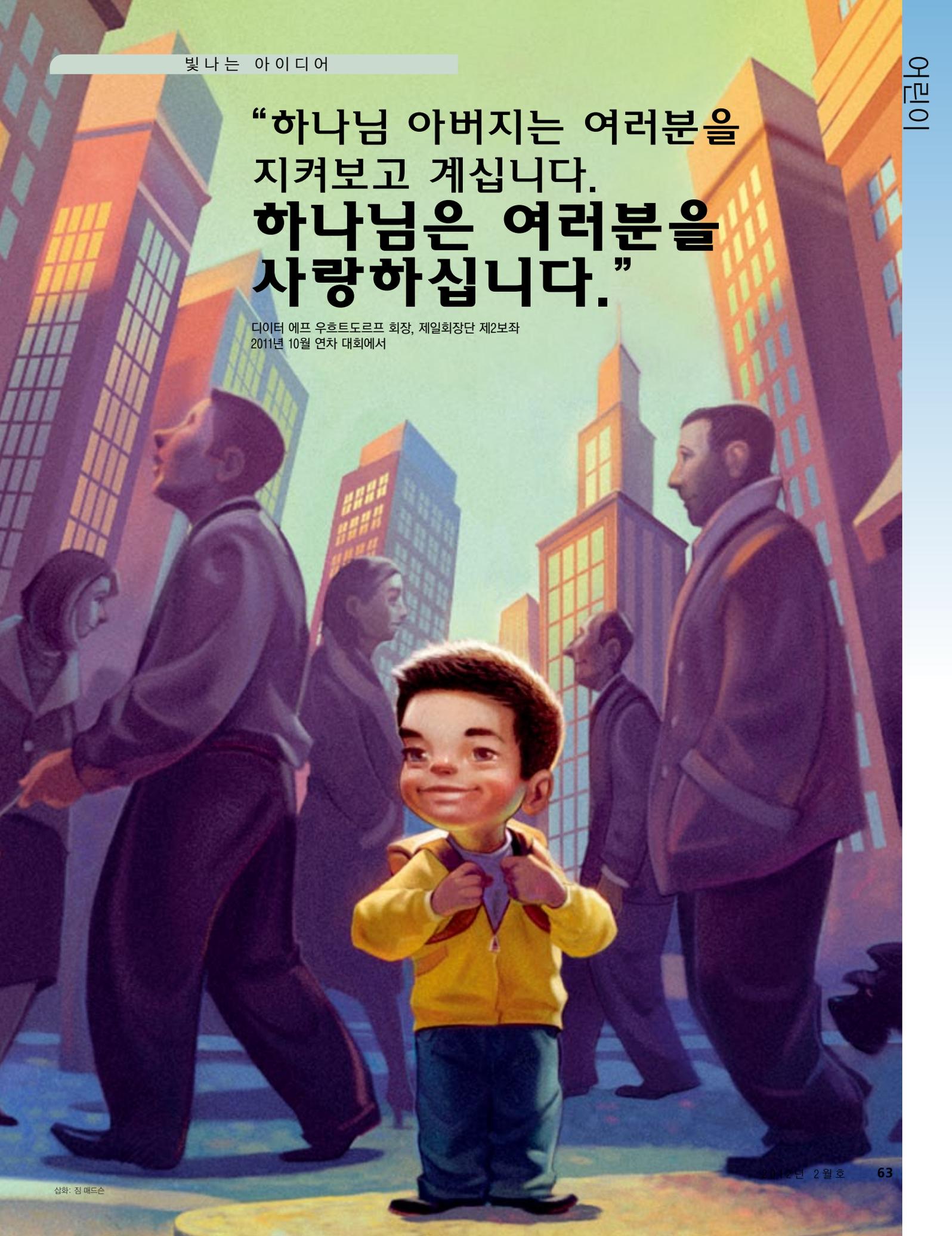
liahona.lds.org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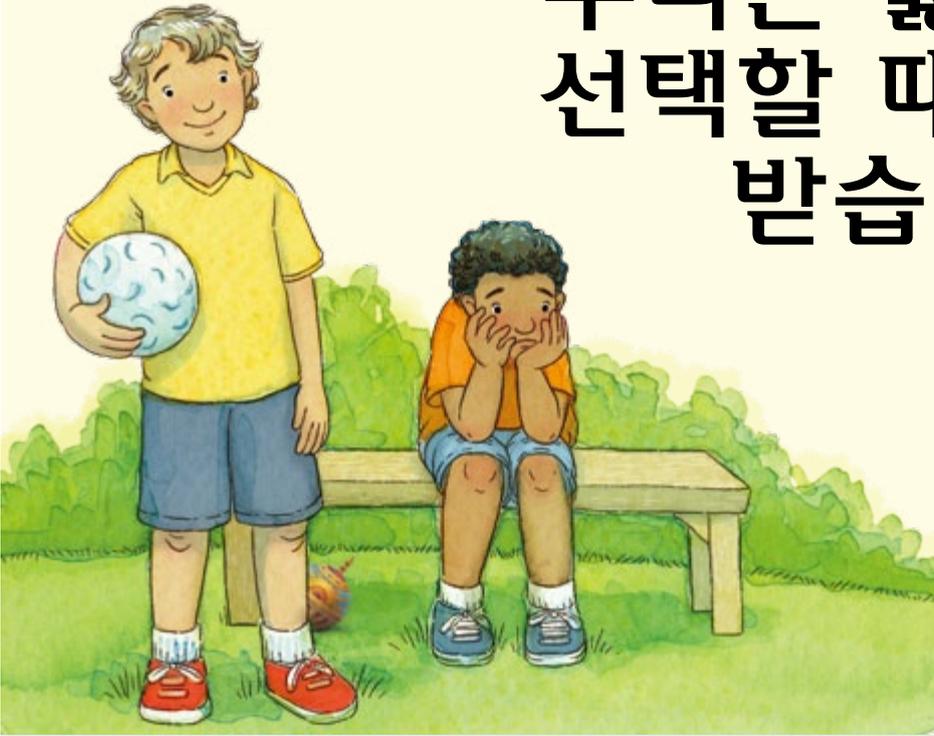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3세에서 12세 사이여야 함),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중에 혼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조셉을 보았습니다. 조셉은 축구를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시합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셉이 같이 축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의로운 모범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랐을 때, 가족 중에서 여러 사람을 홍수에서 구해 내었습니다.(창세기 6~8장 참조)
- 니파이는 사냥용 활이 부러지자

사냥을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활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인 리하이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주님은 니파이가 양식을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니파이전서 16:18~32 참조)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힘들 때도 간혹 있지만, 옳은 일을 선택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면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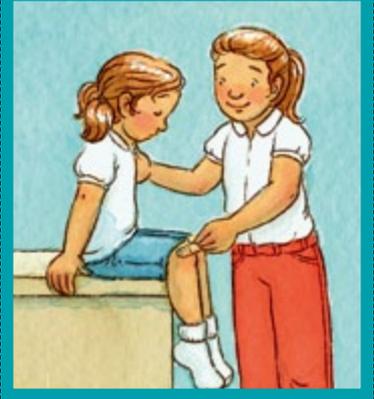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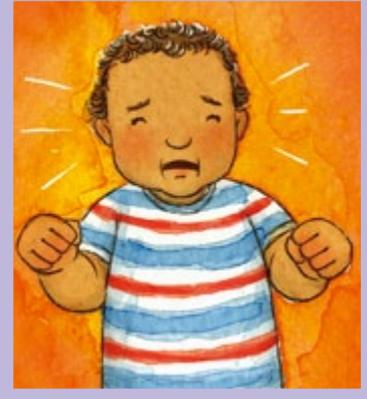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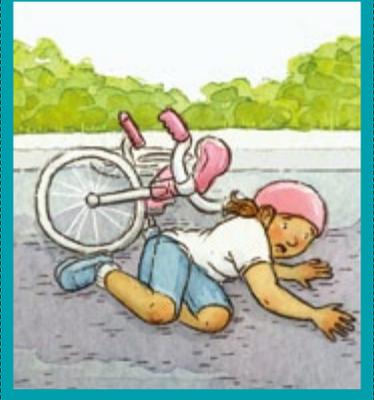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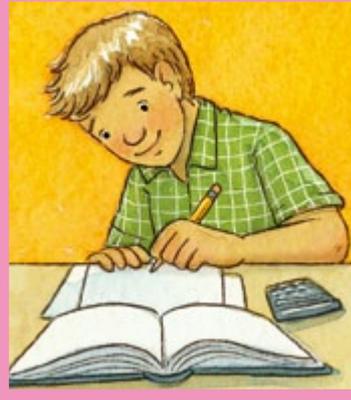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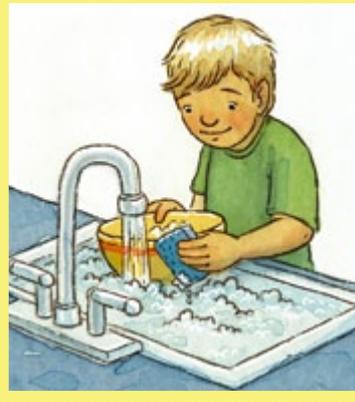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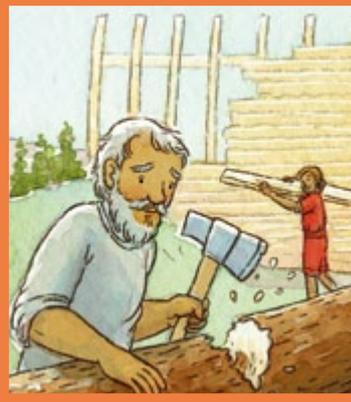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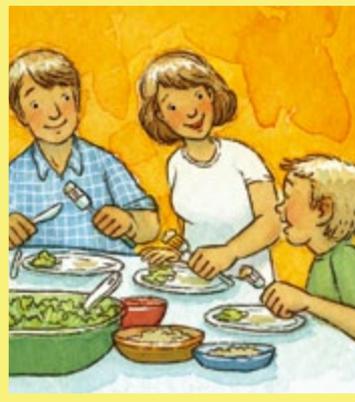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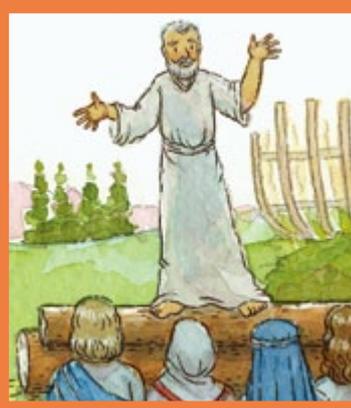
CTR 게임

65쪽을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입니다. 풀이 다 마르면 카드를 올려 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관련 있는 카드 두 장을 찾습니다. 카드 한 장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고, 짝이 맞는 다른 카드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소년이 들어 있는 카드는 그 소년이 십일조를 내는 카드와 짝이 맞는 것입니다.

게임 방법: 카드를 골고루 섞어 그림이 안 보이게 카드를 놓습니다. 한 사람이 두 카드를 뒤집습니다. 카드가 서로 맞으면, 그 사람이 카드를 갖고 다시 새로운 카드 두 장을 뒤집습니다. 카드가 맞지 않으면, 그림이 보이지 않게 다시 뒤집어 놓고 다음 사람이 카드 두 장을 뒤집습니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은 카드 수를 줄이거나 카드 그림이 보이게 해서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노래와 성구

- 모사이아서 2:22
-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안전을 구하는 기도

수엘리 데 아키노

실화에 근거

“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신앙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나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벗, 1991년 3월호, 53쪽)

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새들의 노래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바다의 파도
소리를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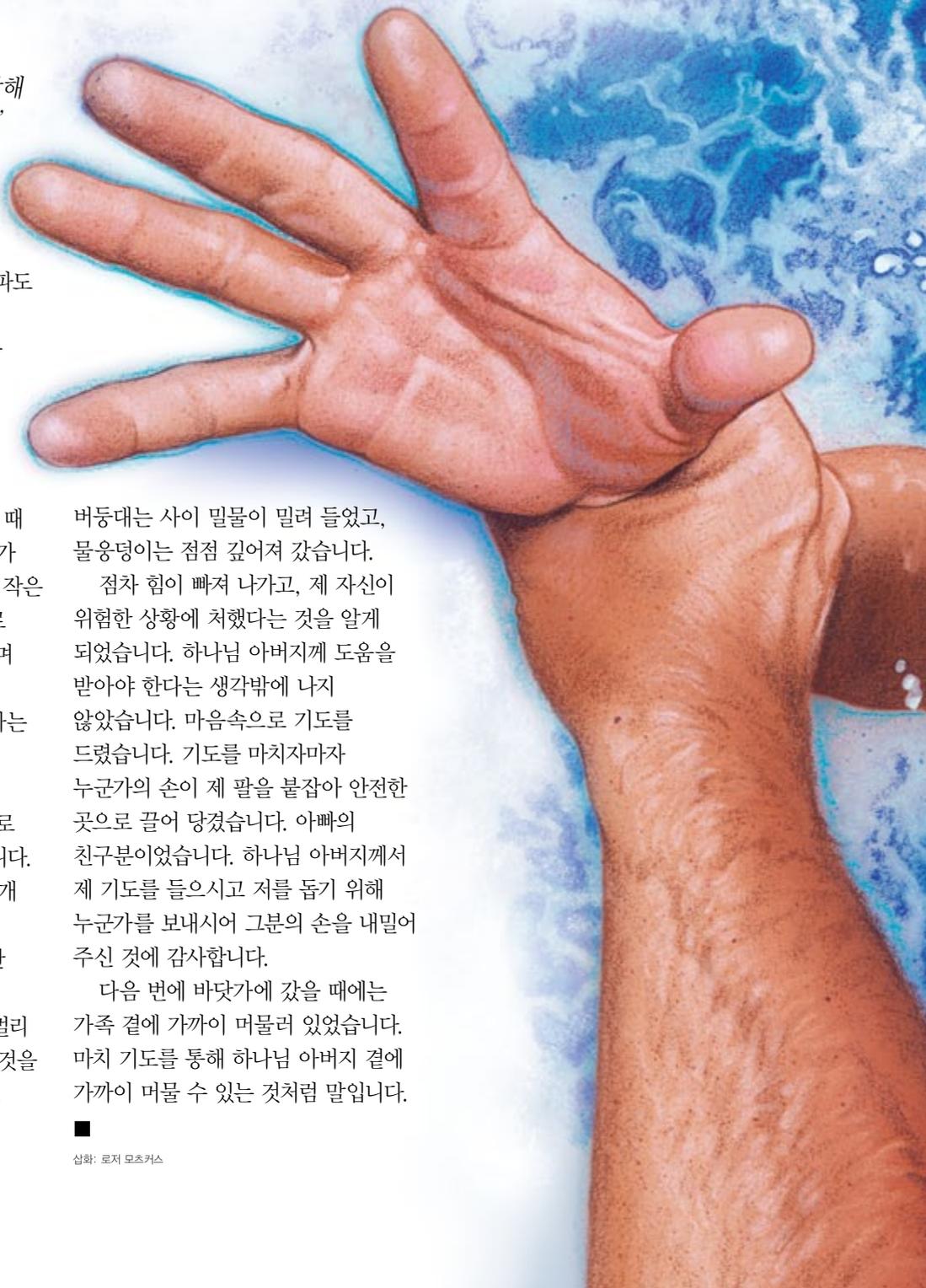
가끔 저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갑니다. 아빠들은
배구를 하고, 엄마들은 파라솔
아래에 앉아 어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했고, 해안을 따라 여기 저기에 작은
물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고기처럼 헤엄치며
조개 껍질도 줍고 싶었습니다.

“멀리 가면 안 된다, 수엘리!” 엄마는
파라솔 그늘 아래로 어린 아이들을
모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는 발가락으로
젖은 모래를 파내려 가며 대답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난 물웅덩이에서 조개
껍질도 찾고 작은 생물들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웅덩이 한
곳에 풍덩 뛰어들면서 가족이 있는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파라솔이 멀리
보였습니다.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해변으로 헤엄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 나오려고



버둥대는 사이 밀물이 밀려 들었고,
물웅덩이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점차 힘이 빠져 나가고, 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아빠의
친구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시어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바닷가에 갔을 때에는
가족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깝게 머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삽화: 로저 모츠커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에서 수엘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배워 봅시다.

1. 그분은 내 ____의 아버지이시다.
2. 그분은 ____에 살도록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곳에서 몸을 받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3. 그분은 내 ____뿐 아니라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
4.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_____.
5. 그분은 내 ____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6. 그분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분의 ____를 조직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7. 그분은 나를 위로하고 ____하기 위해 성신을 보내 주신다.
8.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____게 될 것이다.

살
교회

인도
지켜보신다

영
기도

지상
이름

행복한 밸런타인!



타인 오,
케냐
나이로비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은 세계 도처에서 사랑의 날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이름이 밸런타인이라면 어떨까요? 하루 하루가 사랑의 날이 될까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아홉 살 소녀 타인 오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타이니”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밸런타인입니다.

“제가 2월 14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밸런타인이라 이름 붙여졌어요.”라고 타인이 설명합니다. 타인은 이름에

밸런타인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기를 사랑합니다.



잘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침례 받았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타인은 하루 하루를 어떻게 사랑의 날이 되게 할까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주신 것과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성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병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타인의 가족

타인은 막내이고 세 오빠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타인의 오빠 조지가 말합니다. “뭔가 필요할 때면 타인이 도와줘요. 예전에 학교에서 펜을 잃어버렸는데 타인이 자기 펜을 줬어요.” 언니인 브렌다는, 타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해도 화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타인의 가족은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말합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 모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함께 공부해요. 구주에 대해 배우고, 돌아가며 가족 기도도 해요.”

“저는 친절하고, 교회에 가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인이 말합니다. ■

타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좋아하는 노래: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어린이 노래책, 172~173쪽)

좋아하는 활동: 놀림기와 요리 배우기

좋아하는 음식: 달걀
좋아하는 동물: 이름이 산드라인 강아지. 타인은 또한 야생 동물도 소중히 여깁니다. 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 수도인 나이로비 근처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크기가 매우 큰 야생 동물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곳에는 온갖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동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동물은 지구 창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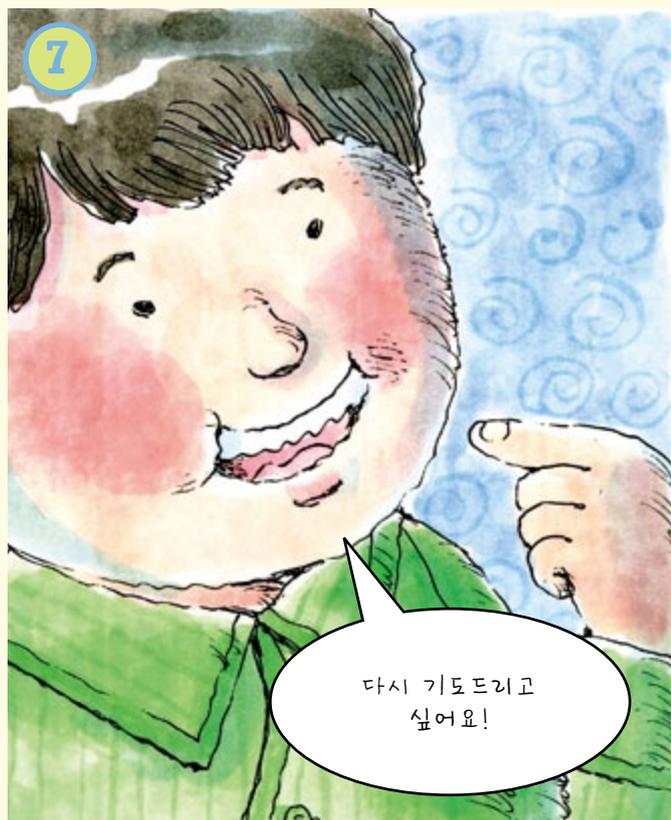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채드 이 패러스

실화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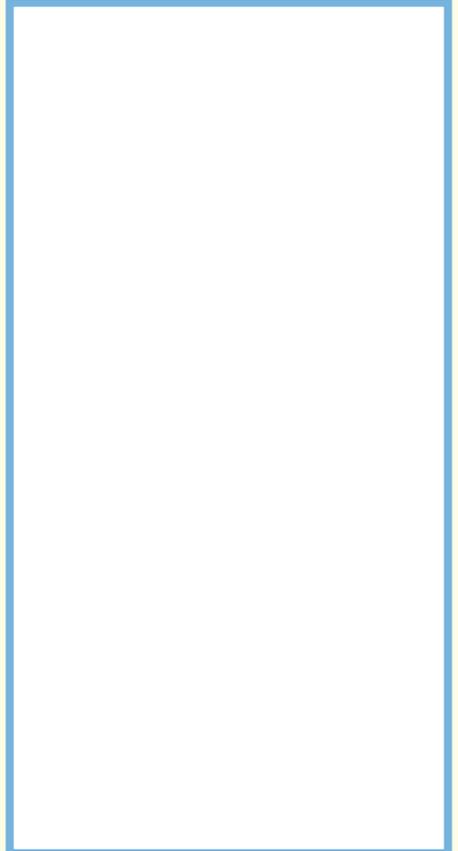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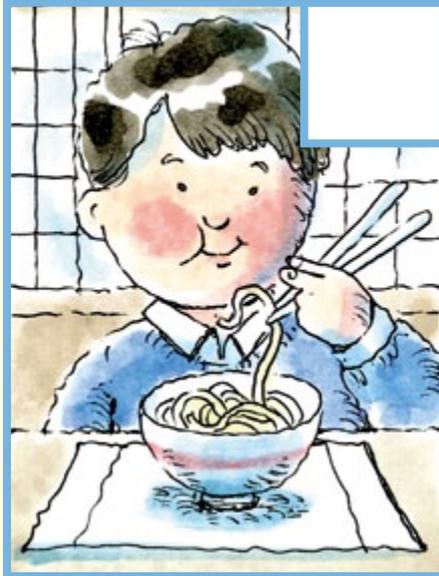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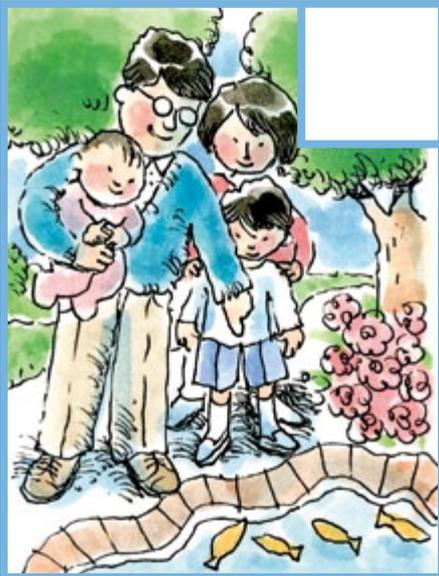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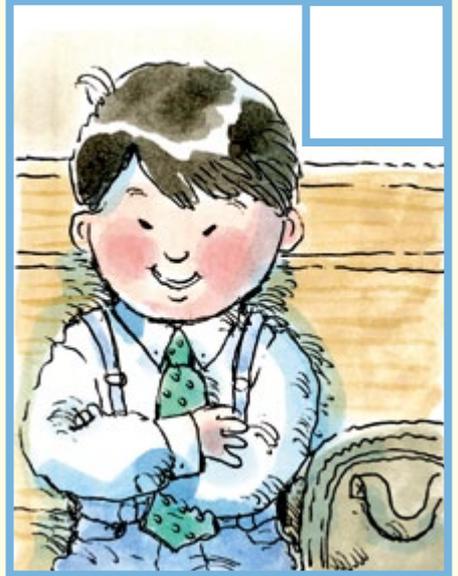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제3니파이 18:21)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환이에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 몇 가지를 보여 주는 아래 그림 옆에 행복한 얼굴을 그려 보세요. 빈 공간에 여러분이 받은 다른 축복을 그려 보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하 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말해 보세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의로움을 선택한 니파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느니라.”
(모사이야서 2:22)

세계 곳곳에서 회원들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봉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2011년 4월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교회의 모든 단위 조직들이 봉사의 날 행사를 열어 교회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기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제일회장단 서한을 통해 모든 단위 조직에 공식적으로 전해졌다. 당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자신이 “주님의 방법대로 도우려고 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지침이 되었던 네 가지 원리를 들려주었다.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5쪽 참조)

2011년에 회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원리를 실천하여 선지자의 권고에 응했다.

원리 1: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때 더 큰 행복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선두에 서서 봉사의 날에 참여하라는 제일회장단의 권고에 응한 스테이크 중에는 파나마에 있는 데이비드 스테이크가 있다. 지역이 매우 넓은 곳이지만 데이비드 스테이크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4월에 행사를 열고 여러 공공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정 비축과 가족 재정, 비상 대응, 보건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워크숍과 시범 행사를 개최했다.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한 이트젤 발데스 곤잘레스 자매는 이런 원리를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리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교회 회원들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리 2: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아루샤 지부 회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설인 상아 하우스에서 자원봉사를하기로 했다.

2011년 8월 20일,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교회 회원과 구도자, 선교사 등 35명은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어 나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공예품과 장신구를 만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와 걸레질 등 청소도 도와주었다.

봉사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상아 하우스 책임자는 봉사자들을 강당으로 오게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감사를 전할 수 있게 했다. 남편인 리치 라이달치 장로와 함께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산드라 라이달치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상아 하우스 사람들은 시내에서 지부 회원들을 만나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지부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한 페이지스 르위자는 이 활동이 상아 하우스 사람들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대단히 유익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관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행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지역 사회에서 보게 된 것들 때문에 저도 간증이 커졌습니다.”

원리 3: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족을 참여시켜서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쿠임브라 스테이크 회원들은 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잘 안다. 실제로 이 스테이크는 물론 도움의 손길이라는 이름 아래 해마다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 지난 해에는 공원 청소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고아원 방문 활동 등 여러 행사를 치렀다. 쿠임브라 스테이크에서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는 아나벨라 고르다오 페레이라 자매는 이런 저런 행사에 온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후 8개월 된 유아에서 88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라고 고르다오 자매는 말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기와 함께 온 어머니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들도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간증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원리 4: “진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주님은 성신을 보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라는 말씀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뉴멕시코 파밍턴 스테이크에서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는 마이클 해치 형제는 아이어링 회장의 권고에 따라 스테이크 봉사의 날을 계획해 보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지역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는 평의회에서 위원들과 모임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위원회와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부탁했다.

로버타 로저스 자매는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그 중에는 그녀가 직접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병원도 있었다. 대개 헌 옷 수집 활동에 입던 바지와 셔츠, 신발, 외투 등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자선 단체에는 양말과 속옷, 잠옷과 같은 물품이 부족하여 기증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로저스 자매는 스테이크에서 이런 물품을 모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10월 15일에 스테이크 회원들은 프로젝트 취지가 적힌 작은 카드 1,000장을 만들어 이웃 집 현관에 걸면서 지역 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알렸다. 한 주 뒤에 스테이크 회원들이 이웃들을 다시 방문하여 물품을 모아 스테이크 센터로 가져와서 물품을 분류한 뒤 현지에서 있는 10여 개 자선 단체에 기증했다.

로저스 자매는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도움이 절실한 여러 단체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한 가족은 겨우 몇 달러만을 사용하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

전 세계에서 회원들이 제일회장단의 권고에 응하여 현지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국제 예술 경연 대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다

교리와 성약 115편 4~6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고 권고하셨다. 그분은 교회 회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폭풍우를 피하고 ……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는 13~18세 교회 청소년들에게 제1회 청소년 국제 예술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회 역사 박물관은 여러 해 동안 성인 교회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 예술 경연 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이제는 청소년을 위해 이와 유사한 국제 경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청소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표현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출품할 수 있다. 박물관측은 2012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이 미흡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림이나 사진, 조각 등 간단한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큰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박물관에서 기획 전자 보조로 일하는 안젤라 에임스 자매는 말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교화시키고 영감을 주는 창조적인 재능을 활용하면 그들 자신도 무척 고무될 것입니다.”

경연 대회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작품만 출품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작품을 2012년 6월 1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출품과 관련된 정보와 유의 사항은 lds.org/youthartcomp에서 볼 수 있다.

경연 대회에는 회화와 소묘, 사진, 조각, 금속 공예, 직물, 장신구, 도자기 등 모든 미술 분야와 형태를 망라하여 출품할 수 있다. 대회 규정과 요건에 따라 “세계 모든 문화와 미술 전통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다. 출품작에 대해 상징적 해설 및 미술 해설을 곁들일 수 있다.”

경연 대회 사이트에서 “Your Creative Process” 편에 대화형 비디오를 개설하여 젊은 미술가들이 아이디어를 활발히 개진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전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참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여러 심사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뒤에 입선자를 선정하여 통지하면 입선자들은 원작을 박물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품작들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전시된 작품 중에서 최대 20개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공로상을 받게 되며, 이 중 세 작품은 전시회가 끝나기 직전에 방문자 투표를 통해 인기상을 받게 된다. ■

제1회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에서는 13~18세 교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몰몬경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시 제작되다

몰몬경 이야기가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광둥어, 중국 표준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다시 제작된 몰몬경 이야기 비디오를 통해 더욱 생생한 화면으로 LDS.org 경전 이야기 편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패럴랙스 애니메이션이라는 첨단 기법을 사용하여 정말 살아 움직이는 듯한 3차원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슬라이드쇼 형태로 이미지를 제공했다. 등장 인물을 오려서 캔버스 주위로 움직이게 하고 패닝(동체 촬영), 블러닝(영상을 흐리게 하는 기법), 주밍 기법 등을 사용하여 시각 효과를 높였다.

이 비디오의 특징은 음향 효과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전 이야기들은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마음에 간증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라고 교회 교과 과정부 경전 협의과 프로젝트 관리자인 브렌트 메이싱어 형제는 말했다. “비디오는 경전을 정기적으로 접하도록 장려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이 경전을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비디오는 “우리는 몰몬경을 어떻게 얻었는가”(제1장)에서 “몰몬경에 담긴 약속”(제54장)까지 54개 이야기가 세 시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비디오에 담긴 이미지들은 제리 톰슨과 로버트 티 바렛이 그린 삽화로 제작되었다. 이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들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거의 10년 동안 *Friend*와 *리아호나*에 연이어 게재되다가 1997년에 몰몬경 이야기로 모여서 출판되었다.

시청자들은 또한 아이튠즈에서 팟캐스트로, 또는 유튜브(YouTube)와 Roku에서 클립으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가족들은 몰몬 채널의 “경전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과 사회자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야기를 읽고, 토론하고, 노래를 부르고 경전에 있는 교훈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다.

신약전서 이야기 비디오가 또한 최근에 11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이 비디오들도 LDS 경전 페이지와 아이튠즈, 유튜브(YouTube)의 몰몬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읽을 때 영을 느껴요

리아호나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을 때 영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저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하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0쪽)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기사와 그 외 다른 기사들은 제 약점을 고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미넌트 에드워드 아사바 장로, 남아프리카 더반 선교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리아호나*에서 저는 하나님의 종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봅니다. 영적인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잡지를 공부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누엘 데 아라우조 페르난데스, 모잠비크

항상 답을 찾습니다

*리아호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보살피 주신다는 제 간증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저는 언제나 제 기도에 대한 답을 *리아호나*에서 찾기 때문에 매달 잡지를 읽을 때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카를로타 에이 보스토로스, 필리핀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처음으로 연차 대회를 그루지아어로 시청하다

2011년 10월 9일에 회중 35명은 연차 대회를 시청했다. 이들은 처음으로 연차 대회를 모국어인 그루지아어로 시청했다. 이번 10월 대회 이전에는 그루지아에 거주하는 활동 회원 50여 명은 러시아어나 아르메니아어, 또는 영어 중에서 선택하여 대회를 들어 왔었다. 그렇지만 그루지아어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 말씀을 그루지아어로 통역하는 일이 항상 커다란 숙제였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그루지아어로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렐라 초노빌라제 자매는 말했다. “연차 대회를 모국어로 들으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교회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응 조치를 취하다

9월 하순 태풍 네삿과 날개가 필리핀에 상륙하여 20만여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자 교회 지역 복지부는 우선 쌀 600부대를 급히 팜팡가 지역에 보냈다. 민간단체이면서 교회와 제휴를 맺은 팜팡가 산페르난도구 소재 팜팡가 사회활동 센터(SACOP)에서 기증된 쌀을 분배했다.

2011년 8월 20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 성도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열린 몰몬 도움의 손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촬영: 에베레 에반스

가톨릭과 후기성도 자원 봉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쌀을 재포장하고 피해를 입은 팜팡가 내 352개 마을에 분배했다.

아프리카 회원들이 제5차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다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교회 회원들은 5년째 열리고 있는 몰몬 도움의 손길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는 아프리카 남동 지역과 아프리카 서지역이 협력하여 치르게 되었다. 매년 하루, 이 지역 회원들은 지역 사회를 돕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 행사는 2011년 8월 20일에 열렸다. 여러 봉사 활동에 대한 소식을 news.lds.org에서 볼 수 있다. ■



사진 촬영: 크레이그 티 울슨

멕시코 회원들을 방문한 벨라드 장로와 젠슨 장로

2011년 9월 10~11일 주말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칠십인 회장단의 제이 이 젠슨 장로가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회원과 선교사가 함께한 모임에 참석했다. 벨라드 장로는 회원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통해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깊이 심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정신적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공감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영적으로 깊이 개심해야 합니다.”

페루와 볼리비아를 찾은 옥스 장로와 앤더슨 장로

2011년 8월에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와 페루를 방문했다. 앤더슨 장로는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어려움을 겪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베드나 장로

2011년 9월 초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영국과 독일(그는 4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덴마크에서 성도들을
만났다. 베드나 장로는 각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속죄 권능을 강조했다. 또 도덕적
선택의지와 능동적으로 행하는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한 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했다. “도덕적 선택의지는
독립적으로 행하는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또 성신의 힘으로
변화됩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방문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news.lds.org에서 총관리
역원 이름과 방문지를 검색해 본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 20쪽: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가정의 밤을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을 기사의
각 편에서 요약하면서 기사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으로 가정의 밤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42쪽: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실린 내용을 먼저 읽고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한다.(lds.org/familyhistoryyouth 참조)
가정의 밤 시간에 가족과 함께 이 기사를 읽은
다음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백 자매가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지 질문한다.
여러분이 계획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본다.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 48쪽: 특별한 성탄절
카드를 받았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스테이크
청소년들 이름을 외웠던 신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 주님이 주신 친절한 자비를

생각해보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한다. “친절하신
자비란 무엇입니까? 누가 친절하신 자비를
받게 될까요? 내가 받은 친절하신 자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이 기사에
실린 베드나 장로의 대답을 새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플러그를 뽑자”, 61쪽: 이 어린이들과
그 가족이 건전한 대중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읽는다. 가족이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사용하는 시간과 “시청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토론해볼 수 있다.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이안
에스 아던 장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쳐 두어서는
안 됩니다.”(“준비할 시간”,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2쪽) 이 기사에 있는 목표와 유사한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본다. ■

월요일 저녁에 활용했던 일요일 공과

매주 가정의 밤 공과를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내서
공과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과제였다.

어느 월요일, 나는 공과 준비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덕분에 받고 있는 남모르는 축복이 떠올랐다. 5세 반 교사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는 전날에 공과를 가르쳤다. 일요일에 가르친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가정의 밤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월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는 순종에 대해 얘기했고, 나는 전날 초등학교에서 전한
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공과를 가족에게 알맞게 준비하여 활용한 것은 매주마다 가정의 밤 공과를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 방법이 되었다. ■

크리스티나 셔우드, 미국 애리조나 주

하늘 부모를 닮고자 애쓰고 공경하며

스코트 밴 캄펜
교회 잡지

칠

십인으로 봉사하신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방에 관한 복음이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하늘 부모님]과 같이 되어 그분들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그분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분들을 모방합니다.(엘머서 5:14 참조)¹

그래픽 디자이너인 나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나는 그럴 때 견본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객이 나에게 작업 과정과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해도 일할 때 참조할 이미지가 있으면 무척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패턴 혹은 견본은 비록 그것이 단지 마음 속 이미지일지라도 목표를 상기시켜 주며,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우리가 거쳐야 할 필멸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가르침만으로는 정보를 소통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모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나 패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며 그분께 돌아가고자 소망한다면, 그분을 본으로 삼아 우리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그분에게 내재하는 품성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²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을 모방할 방법을 보여주는 참된 본보기로 독생자를 실제로 보내 주셨다. 구주께서 필멸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눈뜰 수 있도록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모형으로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도우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방할 때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 예지를 아낌없이 봉사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은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영예롭게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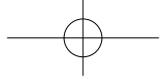
그래픽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때로 삶에서도 마음에 간직한 본보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본보기로 대체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보고 배운다. 나는 와드 집행 서기로 처음 일하던 때에 감독님의 접견 일정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하지만 감독님은 내게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날 누가 감독을 만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고 일깨워 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전화가 울리거나 누군가가 찾아와 감독님께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 감독님은 영의 인도를 따르는 지도력 때문에 회원들을 만날 시간을 낼 수 있었다.

나는 지도자의 모범 외에도 친절과 근면, 지지, 정직, 강직함의 모범을 보여 주시는 부모님을 축복으로 받았다. 부모님의 모범 또한 내가 따를 수 있는 패턴으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실례로 보여 주었다. 지상 부모의 의로운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패턴의 한 부분이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데 필요한 품성들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서 의로운 패턴의 일부가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영원한 가족을 그분께 다시 데려감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진척시키고 그분의 자녀 훈육 방법을 완결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

주

1.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우리의 고결한 하늘 가정”, *리아호나*, 2009년 6월호, 27쪽 참조.
2. 세리 존슨, “올바른 상을 심어줌”, *성도의 빛*, 1984년 6월호, 9쪽 참조.



지역 소식

2012 전국청년대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20 12 전국청년대회의 닷이 올랐다. 전국청년대회는 2012년 8월 11일에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 15일에 끝을 맺는다. 7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2월 18일에는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2012 전국청년대회 소개 모임'(이하 소개 모임)이 있었다. 전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이 참석하고 지역 칠십인들과 대회 기획위원, 그리고 준비위원과 운영위원까지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전국청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2012 전국청년대회의 영문 명칭은 '2012 All Korea YSA Conference'로 30세 이하의 청년 독신 성인을 뜻하는 YSA(Young Single Adult)가 쓰였지만 참석 대상은 독신 성인(Single Adult)까지 확대되었다. 즉, 한국의 모든 후기 성도 청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대회 일자는 2012년 8월 11일 토요일부터 8월 15일 수요일까지이고 장소는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이다.

대회 주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로, 이는 제3니파이 27장 27절의 말씀 중 한 부분이다. 대회 주제와 연관된 일곱 개의 목표도 수립되었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다.
2. 미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 성품, 능력을 발전시킨다.
3.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한다.
4.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준비한다.
5. 또래 친구들과 서로 알고 우정을 쌓을 기회로 삼는다.
6.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며, 교회 표준에 따라 희망찬 미래를 준비한다.
7.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며 세상을 이길 힘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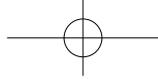
이번 청년 대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우스 활동’, ‘인생 극장’, ‘안식일 모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운영위원장인 조용현 형제는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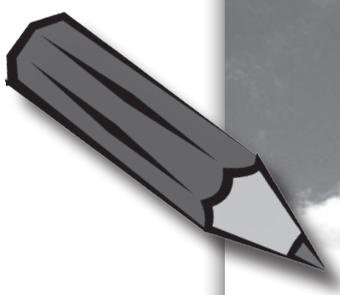
모임에서 “이번 대회의 활동은 최고의 모임, 참여를 통한 성장, 비전, 영성 훈련,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채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칠십인이자 대회장인 김창호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2009년 YSA를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영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도 영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이 대회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단위 조직 게시판에는 2012 전국청년대회 포스터가 붙었다. 준비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두 차례의 안내 모임이 각 스테이크별로 있을 예정이다. 항해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청년 독신 성인들은 배에 오를 일만 남았다. 시간은 8월을 향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다. ■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좇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2012 ALL KOREA YSA CONFERENCE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

—제3니파이 27:27—

2012 전국청년대회

2012년 8월 11일(토)~8월 15일(수) 건양대학교 (논산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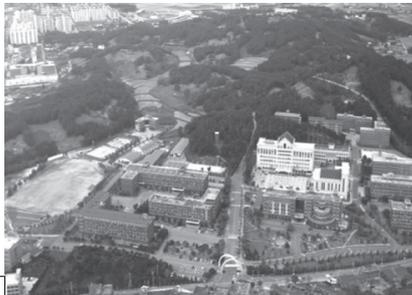
<http://ysa.lds.or.kr> (2012. 3. 1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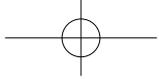
201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2012 전국청년대회는 청년 독신 성인 (YSA)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모든 후기 성도 청년들이 그 참석 대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자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



3월 1일에 개설되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전국청년대회 홍보 카페(<http://cafe.naver.com/ldsystsa>)와 페이스북(검색 창에서 '2012 전국청년대회' 검색) 등에서도 홍보 자료를 보고 청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복지의 ¹⁷ 기본원리 ABC 조용한 봉사 SERVICE

20 1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 제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며, 또한 그것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이러한 선지자의 권고와 지역 회장단의 촉구에 응하여, 수천 명의 북아시아 지역 교회 회원들은 개인으로, 소규모 지역 그룹으로, 그리고 스테이크와 연합 스테이크 차원의 조직을 통해 스스로는 일을 할 여력과 여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용히 봉사하며 일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극히 일부는 주목을 받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모든 봉사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 없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조용한 봉사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흥미롭게도, 도움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쪽을 택합니다. 물론 이는 선을 행하고 구주를 따르려는 마음에서 온 것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준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집에 도움이 필요함을 그 어린이들의 부모가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일회장단 일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결국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사이아서 18:9~10 참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이들의 친절한 행위를 받기셨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을 때 음식을 찾아나선 제자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 그리고 그분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로한 천사의 기사를 봅니다. 또한 구주께서 한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부탁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과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교리와 성약 98:1)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봉사: 무엇을, 어떻게, 왜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현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는 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 사업에 헌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현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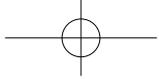
우리가 아이어링 회장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도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인 유익, 또는 기타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돕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니파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하나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니파이후서 26:30)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헌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현세적 은사와 영적인 축복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찬장에서는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으로는 궁핍한 자를 금전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남을 격려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자는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Celestial Nature of Self-Reliance,” *Ensign*, November 198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용한 봉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이는 만물이 나의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6)

결론

조용한 봉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친절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고 받는 회원들 모두가 성품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것들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J. Reuben Clark Jr., *Special Meeting of Stake Presidents*, Oct. 2, 1936. 참조) ■



풀 뿌리 신앙을 찾아서

부산 스테이크 영도 지부 바닷바람처럼 한결 같이

항 구 도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자갈치 시장이다. 온갖 수산물이 모여서 사시사철 푸르게 꿈틀거리는 그 재래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십여 분을 달리면 부산 안의 작은 섬, 영도에 다다른다. 영도는 부산 대교라 불리는 큰 다리와 영도 대교라 불리는 작은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영도 지부는 작은 다리에서 가깝다. 영도 지부의 자그마한 마당에는 언제나 바닷바람이 분다. 시원하고 칼칼한 바람이다. 대개의 부산 사람이 그렇듯 영도 지부 회원들의 성격도 바닷바람을 닮아 시원시원하다. 웃을 때는 화통하게, 진지할 때는 또 '역수로' 진지하다. 새해 첫 안식일의 주일학교 풍경이 꼭 그랬다. 새해

벽두라 인사할 일, 서로의 안부를 물을 일이 많아 시끌벅적 하다기도 물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로 간증을 전하느라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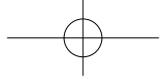
영도 지부의 역사는 꽤 깊다. 1979년 9월 6일, 당시 십이사도였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부산 스테이크를 조직할 때 영도 지부도 조직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다. 한때는 백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회원 수가 무척 많았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안식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십 년 사이 상황은 변했다. 기존 회원들 중 많은 수가 이사를 갔고, 일부는

저활동이 되었다. 바닷바람 가득한 영도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았다. 산복도로 주변 곳곳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자연스레 회원 수가 줄어들었고 빈 주차장에는 예의 찬 바람만 불어댔다.

요즘 영도 지부 회원들은 웃을 일이 많아졌다. 열 대여섯 명 정도까지 떨어졌던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덕분이다. 1월 1일에는 서른세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현재 영도 지부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영도의 토박이이거나 오래 전에 뿌리를 내려 영도 바닷가 사람으로 산 세월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영도 지부의 부침을 함께했다. 한



영도 지부의 회원들



영도 지부의 초등학교 회장단과 어린이들



영도 지부의 주일학교 시간

가족처럼 세월을 보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물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옹다옹하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정이 들어버렸다. 영도 지부 전체에 흐르는 따뜻하고 안온한 기운 속에는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끈끈함이 묻어 있다.

1월 1일 새해 첫 날, 두 명의 청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청남과 청녀가 되었다. 열 명이었던 초등학교 회원은 그 수가 줄었고, 청남과 청녀는 각각 한 명씩 늘어났다. 영도 지부의 유일한 청남이었던 강동현 형제는 작년 EFY에서 자기 말고는 성찬 전달할 사람이 없기에 꼭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빼 놓았다. 그에게 청남 동생이 생긴 소감을 물으니 씩 웃을 뿐이다.

초등학교는 영도 지부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다. 인원 수도 제일 많다. 신앙개조를 외우는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같이 노래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공과를 듣는다. 서로가 서로의 교사다. 영도 지부의 막내인 민영이는 초등학교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 언니 오빠들의 노래를 병긋거는며 입으로만 따라 부른다.

영도 지부의 이성일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영도 지부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영도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영도 지부는 계속 될 것이고 회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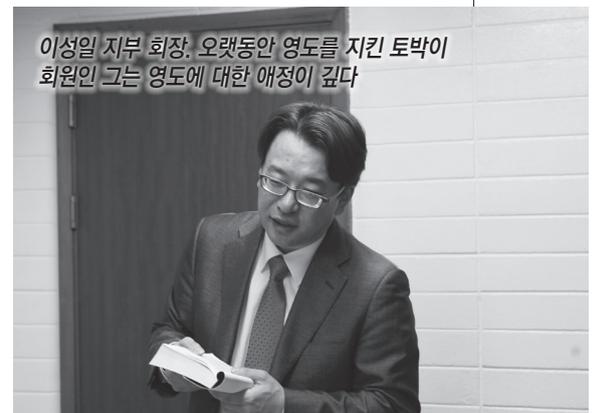
영도 지부의 성찬식은 재래시장처럼 흥겹고 즐거웠던 주일학교 시간과 달리 한없이 진지하고 영적이었다. 연단에 오른 회원들의 경쾌한 사투리만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다. 성찬식에 참석한 회원 중 절반이 초등학교와 청소년이었다. 오랫동안 영도 지부를 지켜 온 회원들은 영도 지부의 미래인 그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도의 회원들은 꿈을 꾸다. 좁은 마당에 차들이 가득 들어차기를, 식구 많은 집 빨랫줄처럼 언제나 붐비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작지만 뿌리 깊은 신앙이 영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꿈꾼다. 영도 지부는 힘을 내는 중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막내 민영이가 한결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또 자라 어른이 되어 영도 지부를 지킬 때까지. ■



강동현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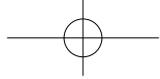
청소년이 된 박선민 형제와 강인아 자매



이성일 지부 회장. 오랫동안 영도를 지킨 토박이 회원인 그는 영도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영도 지부의 성찬식 풍경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의 조선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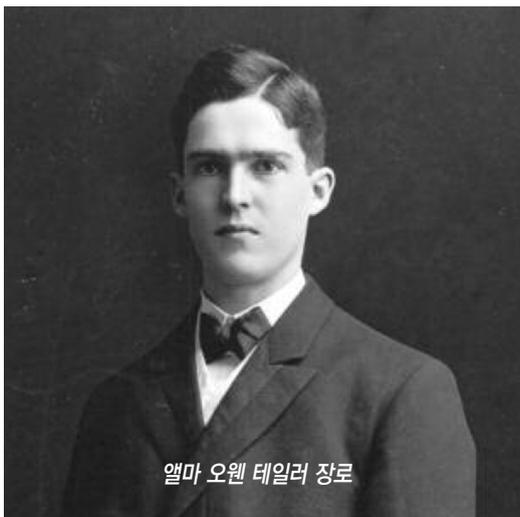
아시아 지역 선교 사업의 탐색

1852년 8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브리검 영 회장은 중국 선교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사람을 중국에 파견했다. 그들의 이름은 호세아 스타우트, 제임스 루이스, 채프먼 던컨이었다. 성도들이 손수레를 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집합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스타우트 장로를 비롯한 이들 세 장로들은 56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으나, 안정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전 세계에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중국 지역 선교의 시도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본격적인 선교는 이후 50년 동안 유럽과 그 외 지역의 선교 사업, 성도들의 시온 이주, 유타를 중심으로 한 북미와 멕시코 지역의 개척, 교회 내의 영적 개혁 운동, 미국 정부와의 갈등 해결과 유타의 주 승격, 십일조를 통한 재정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나서야 진행되었다.

일본 선교부 개설과 한국의 상황

20세기의 첫 해인 1901년 2월 14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일본에 선교부를 열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를 선교부 회장으로 하여 루이스 에이 켈쉬 장로와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장로, 그리고 열여덟 살의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가 일본으로 파송되었다. 엘마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

오웬 테일러(1882~1947) 장로는 1901년 5월 10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랜트 장로와 테일러 장로 일행은 7월 24일 일본으로 떠났다. 테일러 장로는 이후 8년 5개월 동안 일본 선교부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와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선교부 회장 아래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또한 선교부 서기로도 일했으며, 물문경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 후 제3대 일본 선교부 회장을 지냈다.

1852년 첫 중국 선교 가능성 탐사와 1901년 일본 선교부의 개설 사이의 50년간은 유교 왕국 조선이 내외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 해안에는 빈번하게 서양 이양선이 출몰했고,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8천 명이 처형된 천주교에 대한 박해, 이를 깨고자 한 병인양요(1866 프랑스 함선의 침범), 신미양요(1871 미국 함선의 침범)가

있었으며, 동학의 창도와 확산, 개항,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정변, 외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었다.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은 188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등 개신교의 포교를 허용했다. 그 후 폐정개혁을 외치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단이 되어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시해되는 등 숨돌릴 틈 없이 사건들이 몰아쳤다. 이 사이에 일본은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1905년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때로부터 1910년 일본에 강점되는 시기 사이 망국의 위기 앞에 극도의 불안에 빠진 한국인들이 대거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다. 기독교는 한국의 시골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테일러 장로의 한국 방문은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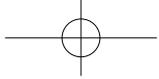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기사는 교회역사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1. 본 기사는 엘마 오웬 테일러 장로의 개인 일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2. 1897년 10월 12일부터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변경되었지만 본 기사에 나오는 '조선'은 당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좌측부터: 선교 사업 당시의 루이스 에이 켈쉬, 히버 제이 그랜트, 엘마 오웬 테일러, 호레이스 에스 엔사인



한국 성도의 소리



비매품으로 발간된 김옥남
자매의 시집 '달콤한 여정'

복음과 문학으로 하나된 가족

첫 아기가 만 8개월 되던 1978년 2월 18일 우리 부부는 침례를 받았다. 어린 소녀에서 십 대의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어 고뇌하였던 나로서는 복음이 주는 가르침에서 삶의 목적을 이해했고, 큰 기쁨을 얻었다. 하지만 함께 침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남편은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와도 간증을 키우지 못했다. 그간의 세월을 돌아보면 내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남편을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영감으로 블로그를 열어 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날마다 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내 간증을 수없이 전하며 단단히 걸어 둔 남편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는 남편의 수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였고 복음 위에 문학이라는 도구가 더해져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다. 남편은 수필을 통해 자기 반성과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간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 두 번째 시집인 '달콤한 여정'을 묶으면서 나는 남편의 수필 15편을 함께 발표했다. 결혼하는 작은딸의 사진 작품으로 표지 그림을 삼고, 단원을 가르는 간지마다 딸의 사진작품을 실은 내 두 번째 시집은 가족 문집이 되었다.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은 복음이 있었기에 참으로 행복하고 달콤한 여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린다. ■

〈김옥남 자매, 순천 지방부〉

침례의 물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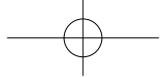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2010년 8월에 침례를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적은 회원 수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분위기가 달랐다. 평범한 회원들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큰 거부감이나 망설임 없이 선교사님과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토론을 하면서도 확고한 간증과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굳은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토론을 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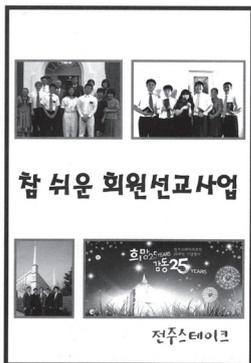
오랫동안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후 나는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고 침례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석한 SMYC는 내 간증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개인적인 문제로 잠시 교회와 멀어졌을 때에는 지부 회원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의 부모님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보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다. ■

〈박푸름 자매, 제주 지방부〉



우리의 활동들 ①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



전 주 스테이크에서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활동은 부산 선교부에서 갖 귀환하고 돌아온 전임 선교사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각 와드별로 선교 책임자와 전임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두 가정을 정해서 그 가족들이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회원들이 두 달에 걸쳐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달 2주차의 '모범 보여 주기' 항목에는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성전 사진을 붙인다.'와 '자신의 자동차에 비회원이 함께 타면 교회 음악을 들려준다.' 등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들어 있다. 이 활동의 주된 목적은 회원들이 친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소개받은 친구를 교회로 잘 인도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 쉬운 회원 선교 사업'이라는 활동 이름처럼 프로그램에 따라 충실히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인 이인기 회장은 말한다. 이 활동을 진두 지휘하는 이인기 회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 활동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달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소화하려면 꾸준히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즉, 회원이 먼저 변화하고, 그 후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각 단위 조직의 특별하고 독특하며 재미있고 영적인 여러 활동 모임 사례를 모집합니다. 다른 지역 회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활동 모임이 있다면 aron1979@hanmail.net나 02-2232-1441(내선 564)로 제보해 주십시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2명/해외 11명



강신향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원민지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대전 선교부



김지은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템플스퀘어



이혜리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아이다호 보이스
선교부



박경민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정모은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서성용 장로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워싱턴 다시 북 선교부



하지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송효빈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허상아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
대전 선교부



안진혁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김만주 장로
권영숙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태백 지부 회장: 박성규(전임: 이승명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감독: 손용문(전임: 홍현길)

lds.or.kr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